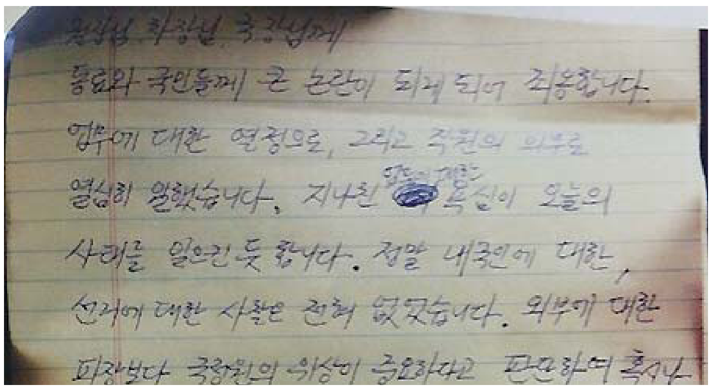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제3261호 www.metroseoul.co.kr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또 죽음의 메시지

19일 공개된 유서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하고 운용한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전문가 임모(45)씨는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 죽어간 셈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최경락 경위,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의 죽음에 이은 임씨의 죽음에 '묵시론적 한국 사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에서는 최 경위부터 시작해 "3번째 정치적 자살"이라는 평가와 함께 '납득하기 힘든 자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민간 사찰이 없었다면 소명만 하면 될 일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경우처럼 이번에도 핵심증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힐 400GB 분량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자살은 다른 자살과 다르다는 평가다. 언론에서 민간 사찰 증거를 쏟아내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날 "할당된 IP가 138개이다.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다음카카오 같은 일반기업도 있다"며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송병형기자


2015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
됩니다
연극
늙은도둑이야기
COMING SOON · COMING SOON
강남앵콜
COMING SOON · COMING SOON
2015. 4. 8 ~ OPENRUN | 코엑스아트홀
작 이상우 | 연출 박정규 | 출연 박철민, 노진원, 정경호, 오민석, 서동갑, 우상욱, 성열석, 맹상열, 민성욱, 안세호, 이호연, 이형구 |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문의 02-3672-0900
기획 제작 이다. Nine Story



뿔난 외국인, 어디로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제3261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2076.79	(−11.10)
코스닥	773.23	(−1.17
금리(국고채 3년)	1.78	(−0.01)
환율(원·달러)	1146.20	(−1.50)

'전쟁'은 여전히 진행중

뉴삼성물산 출범까지 남은 과제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매수청구 설정금액 1조5000억원(삼성물산 1조원 · 제일모직 5000억원) – 설정금액 넘겨 합병 추진 시 합병회사 재무 악화 및 이사진 배임 문제 가능성
엘리엇 관련	– 합병무효 소송 · 이건희 회장 의결권 적법성 문제 제기 – 국민연금 ISD 소송 · 자본시장법 문제 제기 등

'이재용 삼성', 핵심전투 이겼지만 아직 난제 산적
주가급락 조짐에 매수청구권 비상… 법적분쟁도 변수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이라는 핵심 관문 중 하나를 통과했지만 '축배'를 터트리기엔 여전히 변수가 많다.

외국인투자자를 싸잡아 '투기자본'으로 몰아세운 후폭풍도 우려된다.

8월 6일 마감되는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 삼성은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룹 전체로보면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나 두 회사에 축적된 현금성자산을 탕진할 경우 또다른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 위임과 KCC에의 자사주 매각, 우선주 합병비율 산정기준 등을 문제삼아 국내외 법원에 주총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합병비율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규정과 국민연금이 내부기구를 통해 찬성결정을 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한국 법과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논리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타진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엘리엇도 이런 점들을 의식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관건

당장 현안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지난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공시하면서 설정한 주식매수권청구 금액은 1조5000억원(삼성물산 1조원·제일모직 5000억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17일 끝난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보통주(1억5621만7764주) 가운데 41.09%(6419만4104주)가 합병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이 가운데 40.83%(2620만8198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신청하면 당초 설정한 금액 1조 5000억원을 넘긴다. 삼성물산의 보통주 1주 당 주식매수청구가격은 5만7234원이다.

우선주 주식매수청구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삼성물산이 발행한 우선주는 464만8653주다. 삼성물산 우선주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은 1주당 3만4886원이다. 우선주 절반 가량이 주식매수를 청구한다 가정하면 약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투자자들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는 주가 흐름과 직결된다.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매수권 행사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합병안이 통과된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 보통주는 전날보다 10.39% 떨어진 6만2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물산 우선주는 29.66% 급락한 4만1500원이었다. 제일모직도 7.73% 떨어진 17만9000원에 마감했다. 제일모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15만6493원이다.

3월말 기준 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7522억원이다. 지난달 10일 KCC로부터 받기로 한 자사주 매각 대금 6743억원을 더하면 현재 실탄은 2조4255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도 합병을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 재무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이사진의 배임이라는 또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건도 주식매수청구권에 발목을 잡혀 백지화 됐다.

◆ 국내외 법적 분쟁 파상공세도 우려

엘리엇측은 합병안이 통과된 직후 "수많은 독립주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이 승인돼 실망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삼성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법리다툼으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한 주총 결의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주총 전에도 엘리엇은 패하긴 했지만 주주총회 금지와 자사주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의결권 행사 역시 엘리엇이 공론화할 여지가 있다. 엘리엇 측은 주총에서 "(이건희 회장이) 위임장을 제출하셨는지, 제출하셨다면 몇월 몇일, 어떤 방법으로 제출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엘리엇과 외국 투자기관이 영국, 미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국민연금은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산하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정한 뒤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근거로 엘리엇이 ISD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부펀드 성격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의 문제점으로 합병이 통과됨과 동시에 엘리엇의 ISD 소송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엘리엇은 삼성물산 우선주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삼성물산은 우선주가 있지만 제일모직은 우선주가 없다. 삼성은 우선주도 보통주와 같이 제일모직 대비 0.35로 평가했다.

우선주만 보면 제일모직은 비상장 상태다. 이에 따라 우선주의 기준가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엘리엇이 펼칠 수 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한줄 News



▲ 북핵6자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19일 오후 출국했다.

▲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가 19일 언론에 공개됐다. 임씨는 국정원장, 차장, 국장에게 적은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 소환을 4차례 불응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해 법정출석 의사를 밝혔다.

▲ 교육부는 19일 오는 2학기부터 순천대 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와 경북 글로벌교류센터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의 신용카드 납부와 분할납부 등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공정위를 상대로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부과된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메르스 창궐로 말미암아 지난달 13일 부분폐쇄에 들어간 **삼성서울병원**이 20일 0시를 기준으로 부분폐쇄가 해제된다.

▲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일부터 전국 7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급여**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 **정의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3기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를 갖고 심상정 신임 대표와 이정미·김형탁·배준호 신임 부대표를 선출했다.

▲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서울시와 함께 광화문 KT빌딩 1층 드림엔터에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갖고 서울의 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 경북 상주 '**살충제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박모(83·여)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후 1시30분께 열린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발주하는 사업의 국내 기업 수주를 돕기 위한 협의체인 '**코리안 패키지**'가 오는 9월부터 가동된다.

▲ 금융위원회는 19일 **한국벤처투자조합**(KVF·벤처조합)을 설립할 때 모태조합 의무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자에 다양한 인센티브(유인책)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19일 발표한 '2015년 2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을 통해 수출경기 하락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이용자 차별 해소를 달성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통신 시장이 위축되고 또 다른 차별을 가져왔다는 건 상당 부분 오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아파트 교육' 첫 시연

'아파트 대표 온라인 교육시스템' 창조경제 첫 결실 성공적 론칭



19일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덕영치과빌딩 대연회장에서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유관 단체장 등 400여명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보고 있다. /와이드브릿지 제공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효성그룹의 지원으로 개발돼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보급될 예정인 '전국 온라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 교육 시스템'(이하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첫 선을 보였다. 이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발해 보급한 사실상의 첫 결과물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전아연·회장 이재윤)는 19일 대구에서 전아연 창립 12주년 기념식 겸 온라인 교육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전아연 주관하에 전북혁신센터 입주업체인 와이드브릿지(주)가 효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이다.

와이드브릿지 관계자는 "정부가 아파트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의무화 했으나, 약 10만 여명에 이르는 전국의 입주자대표들의 운영교육을 종전의 집체교육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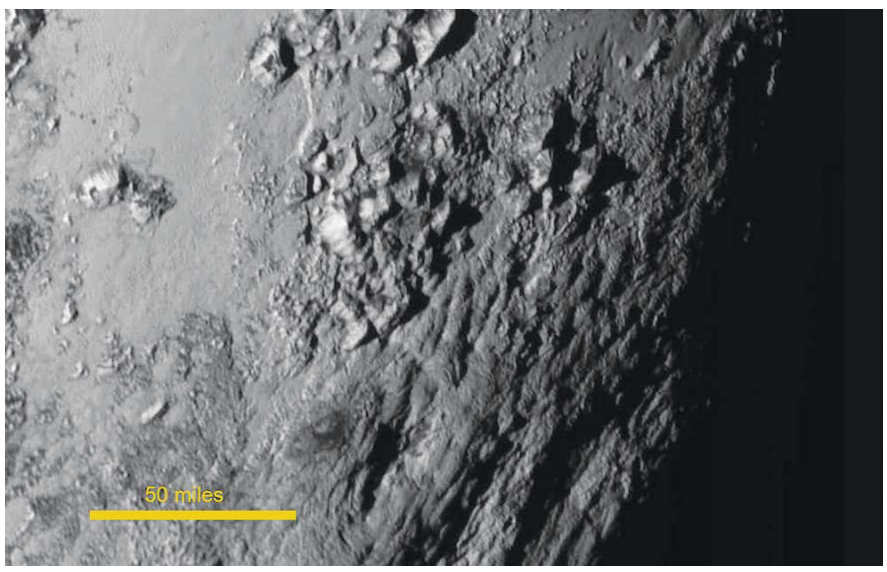
지금까지 아파트 동대표 등에 뽑히면 1년에 한번 열리는 각 지자체 집체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현실적인 여건 탓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한 '제8기 입주자 대표회의운영 교육'은 이재윤 전아연 회장의 특강과 김원일 사무총장의 운영 교육·온라인 교육 시스템 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전아연은 교육에 참여한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운영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했다.

/강민규 기자 unha@metroseoul.co.kr



명왕성에는 3300미터 얼음산이 있다

19일(현지시간) 미항공우주국(NASA)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명왕성의 근접 촬영사진. 뉴호라이즌스의 사진에서 중요한 발견은 '얼음산'의 존재다. NASA는 명왕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높이 3300m가 넘는 얼음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얼음산이 형성된 시기를 약 1억년 전으로 추정했다. NASA는 태양계 나이가 45억년임을 감안하면 1억년 전에 형성된 명왕성은 가장 젊은 행성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NASA 홈페이지

일본서 55년만에 안보투쟁 부활

1960년 기시 노부스케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 강행 시민 봉기에 결국 내각 총사퇴

2015년 노부스케 외손자 아베 안보법 개정 전쟁국가 강행 지지율 뚝‥취임후 최대 위기

일본에서 55년만에 안보투쟁이 부활했다. 집권여당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규정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단독으로 강행하자 일본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60년 일본의 냉전 가담으로 이어질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맞서 일본 시민사회는 안보투쟁을 벌였다. 국가 마비 사태로 치달은 투쟁의 결과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개정안을 비준한지 불과 두달만인 7월 15일 총사퇴해야 했다. 현재 아베 신조 내각은 집권 후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는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전역에서 "아베 정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민들이 모였다. 도쿄 국회 앞에는 5000여명(이하 주최측 추산)이 모여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나고야에서는 번화가인 사카에 광장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종이에 적힌 구호를 외쳤다. 오사카에서는 오기마치 공원에서 1만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집회를 열었다. 교토에서는 마루야마 공원에서 4000여명이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런 대도시들을 포함해 이날 전국 1000여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교도통신이 17~18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7%로 지난 6월의 47.4%에서 9.7%포인트 급락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는 51.6%를 기록해 지난 조사의 43.0%보다 8.6%포인트 급증했다. 과반수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2차 내각에서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여론의 반대가 높은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 틀림없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무대를 참의원으로 옮긴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참의원에서도 여론에 귀를 닫은 채 폭주를 거듭한다면 불신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진지한 태도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증인은 죽었지만 400GB 증거가 남았다

국정원 직원 유서에 "내국인·선거사찰 안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 사찰 의혹을 규명할 핵심증인인 국정원 사이버 안보 전문가가 자살했다. 하지만 의혹을 규명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400기가바이트(GB)라는 막대한 분량의 증거가 남아 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자료다. 해외에서 '역대 가장 투명한 (사찰) 보고서'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유출자료다. 자살로 인해 진상규명의 길이 막힌 유병언·최경락·성완종 씨의 자살과는 다른 점이다.

실제 언론에서 유출자료를 분석해 민간 사찰에 대한 증거를 속속 내놓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해킹을 위해 국정원이 138개의 IP를 할당했고, 여기에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카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도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간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언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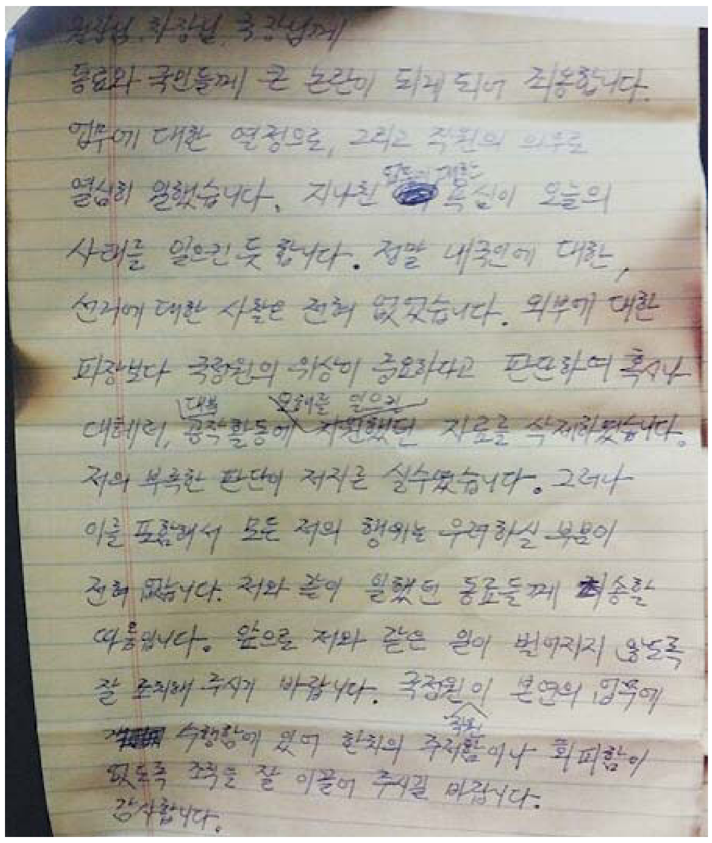
19일 경찰은 전날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 3장 중 국정원에 보낸 유서 1장을 공개했다. 유서에서 임씨는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며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의 유서에서 자살의 이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하다"고만 했을 뿐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유서 공개 직후 임씨에 대해 "20년간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직원으로 직원들간에 신망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산 등을 담당하던 착한 직원인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왜 구입했느냐 감찰도 들어오고, 정치 문제화되니까 압박을 느낀 것 같다"고 자살 이유를 추정했다.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만약 국내 해킹이나 사찰을 안 했다면 소명만 하면 될 것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훈장 포상을 받을 직원일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무고한데 왜 죽었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에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남긴 유서 3장 중 국정원에 남긴 1장이 19일 공개됐다. 나머지 2장은 가족과 부모에게 남긴 유서로 유족들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임씨는 전날 용인에서 자신의 자동차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자살한 장소는 임씨의 집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연합뉴스

해킹 의혹 조사를 맡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역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은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고인이 죽음에 이른 이유에 대한 규명없이 국민 의혹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일단 임씨가 삭제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0% 복구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민간 사찰 의혹을 계속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유서 공개 직후 "해킹팀의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견한 로그파일에서 한국 인터넷 IP 주소 138개를 확인했다. 중복 건수를 포함하면 300건"이라며 "할당 기관은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이고, 다음카카오 같은 일반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점이 있다는 걸 보고 여러 사이트를 검색한 로그(기록) 아닐까 한다.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그냥 지나치겠나. 그 이후 행동이 있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다"며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즉각 "새정치연합이 참고했다는 해킹팀의 유출 로그파일은 디도스 공격 등 외부 해킹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해킹팀사 자체 방화벽의 로그 파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의 해킹 의혹은 민간 사찰과 선거 사찰의 실제 여부, 동시에 대규모 사찰이냐가 쟁점으로 꼽힌다. 국정원은 20개 회선만으로 대규모 사찰이 불가능하고, 대테러·대북 활동에만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 회선 구매에 대한 증거와 민간 사찰에 대한 증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모두 유출된 해킹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400GB라는 방대한 자료는 아직 분석이 진행 중으로 일부분만이 드러난 상태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폐기되는 철도 할인쿠폰' 잊지말고 사용하세요

철도공사가 발급한 할인쿠폰 4장 중 3장이 사용되지 않은 채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총 537만447건의 할인쿠폰이 발급됐으나 이 중 401만2958장의 쿠폰이 미사용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359만4463건의 쿠폰이 발급됐으나 이 중 74%인 265만8628건이 사용되지 못한 채 없어졌다. 2013년에는 미사용 쿠폰 비율이 75.9%, 2012년에는 79.6%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할인쿠폰이 발급된 사실조차 몰라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공지로 고객들이 쿠폰 발급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 10월부터 스마트폰 등 셀프티켓 활성화를 위해 발권고객 중 무작위로 추첨해 10%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쿠폰을 제공 중이다.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소멸한다. /윤정원기자

'6.25는 동족상잔' 평가에 황교안 "남침이 정답"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한 달을 맞아 페이스북 친구 14명과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했다.

19일 총리실은 황 총리가 전날 대학로에서 페친들과 함께 연평해전을 보고 인근 식당에서 피자를 먹으며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지난 10일 안보 행보의 일환으로 연평도를 찾은 이후 연평해전을 관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해전이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20~30대 페친들과 모임을 가졌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영화를 다 본 뒤 페친들에게 "6·25 전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일일이 물어봤다. 이에 일부 페친들이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전쟁이다"라고 대답하자 황 총리는 "6·25 전쟁의 정확한 정의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발생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안보관, 그리고 역사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페친들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하자 황 총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원 기자 garden@

친자확인 승소한 차영의 비판

"법이 미흡해 속수무책이었다"

차영 전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차 전 대변인이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이 주목받고 있다. 글에는 자신의 사연과 함께 친자확인 소송 관련 법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담겨 있다.

차 전 대변인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지난 2년 동안 생애 처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찾는 데는 우리 법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소송에 임하지 않고, 유전자검사 하지 않고, 법원의 우편물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기까지는 어떤 법도 책임을 져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했다"며 "그래도 사회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저도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드는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기아들이 아버지를 찾기가 얼마나 길고 험난한 길인지. 저는 이제부터 남은 시간 그 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조 씨는 그동안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조 씨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명령을 거듭해서 내렸고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조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도 않았다"며 "조 씨의 변호인이 소송대리인을 사임한 이후에는 재판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친자확인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유전자 검사 등 진행 과정에 임하지 않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없다. /윤정원기자

감염우려 높은 '의료폐기물' 국립대병원 이동거리 공개

자료 분석한 박주선 의원, 서울대병원이 최장거리 전북대병원보다 116배 멀어

의료폐기물 이동거리가 길수록 감염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에 의한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의 의료폐기물 이동거리와 의료폐기물량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분석한 '2010-2015년 국립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분원 및 치과병원 포함) 16개의 의료폐기물 총 이동거리는 6480㎞으로 밝혀졌다. 또 병원별 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제주대병원-경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강원대병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16개 지방거점국립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두 곳만 3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300㎞가 넘는 거리임에도 5년간 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이에 반해 전북대병원의 5년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매년 3㎞를 유지해 서울대병원의 폐기물 이동거리와 무려 116배 차이가 났다.

각 병원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350㎞), 제주대병원(308㎞), 경상대병원(200㎞), 강릉원주대치과병원(171㎞), 강원대병원(145㎞) 등 순으로 이 중 이동거리가 100㎞가 넘는 곳은 16개 지역거점국립대병원 중 10개(62.5%)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의료폐기물량은 3777톤이다. 병원별 폐기물량은서울대병원(1208톤)-부산대병원(338톤)-분당서울대병원(334톤)-양산부산대병원(323톤)-충남대병원(314톤)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충남대병원의 2015년 총 의료폐기물량은 2516톤으로 나머지 10개의 지방거점국립대병원 1260톤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립대병원 의료폐기물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위의 5개의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이동거리가 100㎞ 미만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위원장은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인체의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보건대책을 위해 국립대병원만이라도 불필요한 병원-의료폐기물 업체간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에서는 폐기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지 인근처리' 원칙을 두고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를 줄여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권역별 처리제도 등을 도입해 이동거리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면답변에서 "박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국립대학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지도·감독부처인 환경부와 협력하여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5년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가 늘어난 곳은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3곳으로, 분당서울대 병원은 35㎞(2010)에서 320㎞(2011)로, 충북대병원은 80㎞에서 235㎞로, 충남대병원은 111㎞(2014)에서 144㎞(2015)로 폐기물 이동거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2013년에 폐기물 이동거리를 35㎞로 줄였으나, 2014년에 270㎞로 다시 한번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치선기자 chisunti@

이재현, 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CJ회장>

횡령·배임·탈세 혐의 건강문제로 또 연장 신청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재벌 총수가 구속 기소된 후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한 사례 중 최장기간이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달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더 연장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구속기소돼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14년 9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이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20일 법원이 이를 허가해줬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되기도 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길 기대했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역시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면서 상고심으로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은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대법원은 아직 사건 심리가 다 끝나지 않은 데다 선고를 서두른다 해도 원심의 양형을 바꿀 수는 없다. 형을 확정하든 파기환송하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박지만, 증인소환 4차례 불응 끝에 21일 재판 출석 의사

<EG 회장>

박지만(사진) EG 회장이 21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 소환을 4차례 불응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후 내린 결정이다. 검찰의 강제구인 집행으로 '끌려' 나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결정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놓고도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영장 발부 이틀만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이 절차를 신청한 것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는 언론이나 최근 갈등을 겪는 EG 노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아무 이유를 대지 않거나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증인 소환을 거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달 14일에는 과태료를 받고도 증인 소환에 또 불응한 박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서이 기자

경찰 내부 성범죄 근절 노력

전국 여직원 전수 조사 실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엄격한 위계질서를 악용한 경찰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내 여성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상담을 맡는다. 내년부터는 성범죄 피해 상담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적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피해 상담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 대상자는 전국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 행정관, 주무관 등이다.

경력 2년 미만인 여직원은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해야 한다. 새내기 여성이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숨길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2년 이상자는 대면, 전화, 이메일 등 피상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경찰은 상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감찰을 거쳐 가해자를 징계나 고발하게 된다.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사례가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린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성과 관련한 범죄는 파면, 해임 등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불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범죄가 가벼우면 당사자에 대해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한다. 피해 여직원을 보호하려는 차원이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상담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피해 상담 방식을 바꾼다. 경력 5년 미만인 여직원만 반기별 전수조사를 하고, 5년 이상자는 희망자만 상담한다.

/김서이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강 세 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로또복권 제659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7	18	19	27	29	42	4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336,604,216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1,261,027
3등	5개 숫자 일치	1,388,352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호스피스 비용도 건보 적용

건강 레이더

지난 15일부터 호스피스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통증을 잡아주면서 차분하게 임종을 맞게 도와주는 의료가 바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다.

호스피스 지원으로 1일 28만~37만원을 부담하던 진료비가 약 1만8000~2만3000원 수준으로 줄었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 1인실 상급 병실 차액과 초음파 비용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호스피스 서비스로 말기암 환자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고,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무의미한 치료 대신 호스피스를 선택하게 되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맘이 한결 편해질 수 있다. 호스피스를 통해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삶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가족들은 우선 환자가 좋아하고 집에 있을 때 통증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것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뒤에는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이런 호스피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졌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진통제 투약 등 의료 행위는 횟수와 상관없이 정액제로 운영된다. 호스피스 5인실 기준 하루 진료비는 의원급은 20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29만 원 선이지만 환자 본인은 6~7%만 내면 된다. 여기에 병원이 간병인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 비용까지 보험에 포함된다.

간병인 비용은 하루 7만6000원 선이지만 환자는 병원급에 상관없이 하루 38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호스피스 병동이 간병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원 전 간병 서비스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유리하다.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 급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상담, 원외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요법도 호스피스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60개인 전국의 호스피스 의료기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스피스의료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치선기자

일선판사 "가족과 보낼 시간 없다"

한 달에 300개 사건 처리
업무량 불만 목소리 높아

일선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려 불만 섞인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특히 혼자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부 판사들은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 판사들에 따르면 재판부가 평균 한달에 처리해야 할 사건은 300개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부와 민사부에 가벼운 범죄 사건과 소액사건을 각각 포함시켜 큰 사건이 몰리는 것을 방지했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반응이다. 작은 사건이라도 각기 성향이 달라 이에 맞게 심리하면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매한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판사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등을 판사 신분으로 영입하는 '경력 법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갓 돌을 지난 아이를 볼 시간도 없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쏟아지는 사건들을 매일 재판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 병원갈 시간도 없다"며 "대법원 측이 업무 개선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털어놨다.

대전지법 C(여)부장판사도 "하루에 10여개 사건만 줄여줘도 판사들이 업무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각 법원마다 재판부를 더 늘려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부 판사들은 합의부 판사들에 비해 더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 소액사건을 주로 맡지만 혼자 많은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단독판사들은 이 같은 이유로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D단독판사는 "판사도 사람이라 업무량이 많아지면 힘들어 한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대법원 측에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의 업무량이 적지 않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북적이는 한강공원 망원 수영장 한강수영장이 지난 17일 올해 처음 문을 연 가운데 19일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망원수영장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메르스, 14일간 추가확진 없어 사실상 종식

삼성서울병원, 20일 0시 부분폐쇄 해제…37일만

잠복기인 14일동안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만 남았다. 보건당국은 19일 오전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각각 기존과 같은 186명, 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치명률은 19.4%이다. 퇴원은 1명 늘어 총 136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퇴원자는 평택 경찰관인 119번 환자(남, 35)로 감염경로는 오리무중이다. 격리자는 전날 98명에서 30명이 줄어 68명으로 나타났다. 격리해제자도 그 수만큼 늘어 전날 1만6595명에서 1만6625명으로증가했다.

마지막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추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20일 0시 기준으로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됐다. 지난달13일 부분 폐쇄 결정이 내려진 지 37일 만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즉각대응팀은 메르스 관리를 위한 삼성서울병원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격리해제 이후 감염관리 계획을 집중 검토해 부분 폐쇄 해제 시점을 검토 중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0시를 기해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격리 해제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위기평가 회의를 거쳐 종식 선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도 종식 선언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종식선언 시점은 8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보다 빨리 자체 종식선언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치선기자 chisunti@

삼성합병에 삐친 외국인 '셀코리아' 지속하나

17일 외국인 '매물 폭탄'…5년래 두번째 큰 순매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이후 외국인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주총 개최일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대거 매도해 온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이어갈 것인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삼성그룹주 17개(우선주 제외) 가운데 80% 이상인 14개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합병이 성사된 직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각각 10.39%, 7.73% 하락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최근 조선산업의 부실화 악재까지 겹쳐 12% 떨어졌다.

삼성물산 주가는 이날 오전 한때 3.6%까지 올랐다가 합병 가결 발표 직전인 낮 12시 무렵부터 추락했다. 제일모직도 삼성물산 주총 결과가 나온 직후인 12시 50분쯤 4.6%까지 상승했다가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로써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 계획이 발표된 5월 26일 종가(6만3500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삼성중공업(-12.39%), 삼성전기(-4.51%), 삼성엔지니어링(-4.23%), 삼성생명(-2.80%), 삼성SDI(-2.69%), 크레듀(-2.21%), 삼성SDS(-1.57%), 호텔신라(-1.52%), 삼성정밀화학(-1.46%), 삼성카드(-1.32%), 삼성화재(-0.52%)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날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합병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 합병 성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선 것은 기대와 다른 주총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은 이날 두 종목을 대거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삼성물산 주식 968억2000만원 어치를 팔았다. 이는 최근 5년만에 두번째로 큰 외국인 순매도 규모다. 지난 한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도 삼성물산이었다. 외국인은 같은 날 제일모직도 331억1600만원어치 순매도했다. 기관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해 551억5700만원과 542억7900만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국인이 '셀 코리아'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합병 이슈가 사라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팔라졌다"며 "이 때문에 두 회사 주가의 약세 흐름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외국인들의 이탈로 주가가 합병 발표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각에선 "두 회사의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 헤지펀드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헤지펀드들이 합병 전 공매도나 선물거래 등으로 이익을 사전에 확정해뒀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달 6일까지 양사 주가가 10% 이상 더 떨어진다면 상당수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한화, 내수경기 활성화 전폭지원

50억 규모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50억 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한화그룹 온누리상품권 50억 원어치를 전통시장이나 휴가지에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전체 임직원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외에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임직원에게 그룹 방송과 사내 통신망을 통해 국내여행을 적극 장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지역 마을을 방문해 특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는 수십만원에 상당하는 한화리조트 상품권을 별도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전국 12곳의 한화리조트와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부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어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또 한화그룹은 그룹이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블로그 및 사내 인트라넷에 직접 제작한 전국 맛집지도를 게재했다.

페이스북에는 '지하철 6호선 주변 맛집, 전통시장 맛집, 팔도 해장 맛집, 회식장소 추천 맛집, 외국인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맛집' 등 주제별로 맛집지도 50여편을 올려 한화그룹 임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의 회식이나 모임 장소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최근 시내면세점을 획득한 한화갤러리아는 농수축산품의 명품화 육성 및 판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실무 관련 부서가 농수축산품의 디자인 개선, 시제품 제작 지원, 스토리텔링 중심의 마케팅 제안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선발된 제품은 갤러리아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백화점 및 마트 등과 연계해 판로를 확대한다.

63빌딩에 들어설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판로 개척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을 위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리조트 내에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개설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심경섭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는 "최근 여러 가지 사유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번 이벤트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내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일방적 거래중단에 집기보상도 안해"

롯데계열사 롭스 갑질논란
에치비엘 "파산직전 몰려"
롭스 "뒷거래 사실무근이다"



롯데쇼핑 롭스 매장의 모습. /롯데그룹 블로그 캡처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계열사가 거래중이던 중소업체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2개월간 거래를 중단해 해당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헬스·뷰티 사업 브랜드 롭스(대표 강성현)는 지난 5월 14일 바디케어 브랜드 '아란아로미틱스'와 '컨셉투'를 납품하는 벤더 기업인 에치비엘(대표 김미아)을 발주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롭스는 2013년 5월 출범된 롯데의 드럭스토어 사업부다.

에치비엘 관계자는 "롭스 측에 수차례 거래 중단 이유를 물었으나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다가 이달 초부터는 아예 거래 종료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롭스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나온 배경에는 또 다른 협력사를 우리 회사 대신 납품업체로 넣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치비엘은 롭스가 출범한 2013년 5월부터 바디케어 브랜드를 납품해 온 업체로 롭스가 유일한 거래처다.

롭스가 지난 1일 통보해온 거래 중단 사유는 ▲다른 협력사로부터 납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재고 관리 차원 ▲반품이 안되는 것이 문제 등이었다.

이에 에치비엘은 ▲본사의 확인 없이 다른 협력사의 말만 듣고 납품 문제를 확정한 점 ▲롭스 매장에서 에치비엘에 발주 문의를 지속적으로 한 점 ▲납품 종료 시기까지 반품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롭스는 거래 종료를 기정 사실화하고 정리 수순만 논의할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사이자 공급사인 오세아코리아는 자금결제 날짜가 아님에도 에치비엘에 결제를 요구했고, 향후 다른 벤더 업체인 정인인더스가 공급을 맡을 것이라는 말을 에치비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롭스는 에치비엘과 거래를 중지할 경우 약 2700만원의 집기설치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했다. 후임 협력사가 에치비엘이 설치한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내의 거래중지를 한 경우에는 매장 설치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에치비엘이 이러한 정황을 강성현 롭스 대표에 보고하자 롭스 담당 MD는 지난 13일 오전 갑작스럽게 에치비엘을 상대로 발주를 했다. 하지만 현재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에치비엘은 롭스와 정인인더스, 오세아코리아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에치비엘 관계자는 "이 모두가 롭스의 담당 MD와 친분이 있는 모 과장이 속해 있는 정인인더스가 사전 공모한 조치"라며 "롭스에만 납품하며 롭스 의존도가 100%인 우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타 브랜드를 밀어주기 위해 정상적인 업체를 문제 업체로 만들어 통보도 없이 거래 중지를 했다"고 말했다.

롭스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사태를 파악 중이지만 담당 MD가 정인인더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확실하며 현재 그 업체가 에치비엘의 제품을 대신 납품하고 있지도 않다"며 "에치비엘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

대외 불확실성↓ 대형주 '실적 우려'↑

2분기 GDP 성장률 0.4% 그쳐…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이번주 증시는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중국증시가 안정을 찾으면서 대외 변수는 줄어든 가운데 대형주들의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란 불안감으로 증시 상승폭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번주(20~24일) 코스피는 2040~2120선 박스권 장세가 점쳐지고 있다.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중국증시가 안정을 찾으면서 대외 변수는 줄었으나 줄줄이 이어질 대형주들의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시 상승폭도 제한될 전망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3~17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25% 상승한 2076.79포인트를 기록했다. 주 초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소식과 중국증시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주 중반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이 더해지며 강세를 이어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총회 전날인 16일에는 이들 회사의 합병 기대에 삼성그룹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208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주총 당일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다.

◆2분기 GDP 성장률, 기대치 하회 전망

이번주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는 ▲한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23일) ▲유로존 7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발표(24일) 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수출부진과 메르스사태, 가뭄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4월 2.0%로 밝힌 전망치에서 크게 내린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2.8%로 하향 조정됐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메르스에 따른 내수 부진이, 대외적으로는 수출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2분기 성장률은 1분기(0.8%)보다 낮아져 경기 우려감을 높일 것"이라며 "다만 7월 소비자심리는 메르스 충격이 완화되면서 호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유로존의 제조업 PMI는 유로화 약세, 제조업 경기 회복 등이 호재로 작용해 전월(52.5p)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 어닝시즌… 종목장세 예상

이번주에는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차, 삼성물산,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된다. 앞서 삼성전자가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외국인이 연일 주식을 매도한 바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에는 IT, 자동차, 건설, 은행 등 많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추가 하락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에 따라 조선, 건설, 플랜트 관련 업종에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현재 2분기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24조4000억원으로 메르스 발생 이전 25조3000억원 대비 1조원 가량 하향 조정된 상태"라며 "최근 코스피 이익수정비율은 -5.7%로,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에너지, 화학, 보험, 증권 등의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반면 디스플레이, 운송, 건설, 기계, 자동차 등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의 관심은 그리스와 중국에서 미국 경기·2분기 실적 발표로 옮겨갈 것"이라며 "메르스 영향 등에 따라 일시적인 실적 둔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쿠쿠전자, 中시장 성장가능성 가시화

| 마켓인사이트 |



쿠쿠전자 '10인용 열판 전기압력밥솥'(왼쪽)과 쿠쿠전자 '풀스테인리스 2.0 메탈릭 에코'. /쿠쿠전자 제공

2분기 실적 장밋빛 전망에 주가 상승
中 전기밥솥 시장, 매년 10% 성장 예상

'쿠쿠전자'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와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승승장구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쿠쿠전자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2% 오른 27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약세를 면치 못했던 주가는 이달 급반등하며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쿠쿠전자의 주가가 최근 상승한 것은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쿠쿠전자는 지난 1998년 '쿠쿠'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전기압력밥솥 누적 판매량이 300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국내 총가구수(약 1800만 가구)로 환산하면 1가구당 1.7대의 쿠쿠 밥솥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에선 쿠쿠전자가 프리미엄 밥솥브랜드로 알려져 중국 관광객 사이에서 필수 쇼핑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저력이 중국시장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혜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 전기압력밥솥 성장 가능성이 가시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28만5000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김 연구원은 "쿠쿠전자는 지난 20년간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이라며 "국내 전기압력밥솥 시장에서의 저력이 중국시장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의 전기밥솥 시장 규모는 약 2조 위안(약 370억원) 수준으로 매년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고가의 프리미엄 비중은 아직 10% 수준(한국은 약 50%)에 불과하다. 향후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 여력은 커질 전망이다.

그는 "중국 소비자들은 해외 일류(명품) 브랜드에 대한 선망이 매우 강하다"면서 "쿠쿠전자의 밥솥이 중국 내수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쿠쿠전자의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예상치를 각각 2.9%, 13.6% 상향 조정했다.

올해 2분기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키움증권 김지산 연구원은 "중국 수출이 기대 이상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온라인과 홈쇼핑 판매도 늘고 있다"며 "올 2분기 큰 폭의 이익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분기 쿠쿠전자의 영업이익을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한 228억원으로 추정했다. /김민지 기자 minji@

<주간 경제지표 일정>

일정	국가	기준월	지표	예상치	이전치
20일	유로존	5월	경상수지		22.3
21일	일본	5월	선행지수		106.2
	일본	5월	동행지수		109.2
22일	일본	6월	공작기계수주		6.60%
	미국	5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0.50%	0.30%
	미국	6월	기존주택판매 (MoM)	0.90%	5.10%
23일	한국	2분기	GDP (YoY)	2.30%	2.50%
	일본	6월	수출 (YoY)	10.40%	2.40%
	일본	6월	수입 (YoY)	-4.00%	-8.70%
	일본	6월	무역수지	-¥171.0B	-¥182.5B
	유로존	7월	소비자신뢰지수	-5.8	-5.6
	미국	6월	컨퍼런스보드 선행지수	0.10%	0.70%
24일	한국	7월	소비자심리지수		99
	유로존	7월	Markit 제조업 PMI	52.5	52.5
	유로존	7월	Markit 서비스 PMI	54.3	54.4
	유로존	7월	Markit 합성 PMI	54.2	54.2
	중국	7월	HSBC 제조업 PMI	49.8	53.6
	미국	6월	신규주택판매 (MoM)	-1.10%	49.4

/KDB대우증권 리서치 센터 제공

금감원 Q&A

"기업들의 공시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Q. 얼마전 OO기업의 정보가 필요해 검색을 하다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DART 시스템을 알게 돼 잘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검색해서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더 편리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제출 즉시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되는 공시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공시정보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우선 DART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서 공시정보알람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개황화면 또는 최근공시 화면의 '주소복사(RSS)'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용자 PC나 스마트폰의 구독 프로그램에 위에서 복사한 주소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구독 프로그램에서 관심기업과 최근공시 목록을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김민지 기자

통합전산시스템 가동… "시너지 극대화 목표"

하나·외환카드, 모바일 앱·홈페이지 등 IT시스템 통일화
직원간 조직문화·보상체계 등 완벽한 통합 시간 걸릴 듯

하나카드가 외환카드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오는 20일부터 (구)하나SK카드와 (구)외환카드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한다.

지난해 '하나카드'로 사명을 바꾸며 1단계 통합을 완료한데 이어 카드발급과 홈페이지, 콜센터 등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까지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에 통합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하나카드, 카드발급-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일원화

지난해 말 하나SK·외환카드는 하나카드 출범식을 열고 물리적인 통합을 했다.

당시 하나카드는 7본부 42개팀 4지점으로 조직을 꾸리고 브랜드관리팀과 글로벌마케팅팀, 조직 융합을 위한 '변화관리 TFT' 등을 신설했다.

하지만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이 별도 운영되며 고객의 불편과 혼선도 있었던 것.

이에 하나카드는 카드통합 시너지 창출의 핵심인 IT시스템 통합을 준비해왔다.

그 일환으로 최근 ARS와 결제일 변경 등 일부 서비스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통합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별도 운영되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가 하나로 통일되며 가맹점에서 포인트 사용 시에도 하나포인트와 YES포인트 합산이용이 가능해진다.

하나카드는 시스템 통합이 완료되면 고객 불편 감소는 물론 연간 약 160억원 전산 운영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산과 영업망 통합이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실제 지난 1분기 하나카드는 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했다.



지난해 12월 통합 하나카드 출범식에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가운데)과 하나카드 정해붕 사장(김 회장 왼쪽), 하나카드 권혁승 부사장(김 회장 오른쪽)등이 '국내 톱 카드사로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하나카드 제공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IT시스템 통합비용 등 통합초기비용의 일시적 영향 때문"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74억원 정도의 분기 흑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카드시장 점유율 8%, 중위권 카드사 경쟁 치열

한편 하나카드의 등장으로 카드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통합으로 하나카드의 회원수는 520만명(개인 신용카드 기준)에 자산 6조원, 연간 매출 50조원에 이른다.

국내 카드시장 점유율도 8.1%로 중견카드사에 꼽힌다.

통합 성과도 가시적이다.

올 1분기 하나카드의 개인 신용판매 결제 규모는 6조9200억원으로 업계 6위에 올라섰다.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점유율은 8.0%로 5위인 롯데카드(8.7%)를 바짝 뒤쫓고 있다.

하나카드는 지속성장을 위해 규모의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ICT 기반 모바일결제 주도권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매출 140조원, 순익 5000억원, 시장 점유율은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도 세웠다.

물론 아직 남은 과제도 있다. 임직원간의 서로 다른 직급과 보상체계, 승진 시스템 등이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카드는 직원 복지 등 통합 가능한 부분은 즉시 적용하고 노사간 합의를 위해 TFT을 구성, 논의할 예정이다.

결국 내부 조직문제에 있어선 완벽한 통합까지 일정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해붕 하나카드 사장은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외환카드의 '역사'와 모바일카드 시장을 선도해온 하나SK카드의 '혁신'을 결합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고객 개개인 모두를 '나' 자신이라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나를 위한 스마트 라이프를 제공하는 혁신 카드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는 뭔가요?

법무부 연계 출국여부 제공
해외서 부정사용 예방 효과

카드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이 해외여행 시 카드 정보유출·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용카드포털 카드고릴라는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자사 웹사이트 방문자 103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아니오(서비스에 대해 모름)'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1.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는 20.9%의 득표율을 얻은 '아니오(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라는 답변이 차지했다.



/카드고릴라 제공

반면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카드소비자는 17.5%에 불과했다.

한편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는 카드사가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 카드회원의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에서 카드 정보유출이나 부정·도난사용 매출 판단 시에 활용한다.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법무부 출입관리국이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는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 상세내용이 아닌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만 제공받는다.

이러한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는 한 번만 신청해두면 별도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지속 제공된다.

신규 카드발급자의 경우 신청서 중 해당 항목에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며, 기존 카드소지자의 경우 각 카드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카드고릴라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카드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카드관련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이 17~18일 천안연수원에서 개최한 '2015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강평을 하고 있다. /신한생명 제공

신한생명, 안정적 자산운용 ALM가이드라인 운영

2015년 하반기 전략회의 개최
실질적 성과 위한 'Top3' 발표

신한생명은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천안 명덕리 신한생명 천안연수원에서 '2015년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전략목표 '2015 변화의 시작, CHANGE TO VALUE' 달성을 위한 하반기 슬로건 'ToP3(티오피 쓰리)'가 발표된 이날 회의에는 이성락 사장과 임원, 부서장, 지점장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

'ToP3'는 '생산성 제고, 유지율 개선, 보장성 확대'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이다.

신한생명은 올 상반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신계약 확대에 주력, 보장성보험의 월납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고 당기순이익 또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채널별로 ▲FC채널(설계사)은 회사의 가치 개선을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 ▲CBM채널(텔레마케팅)은 규모에 맞는 생산성 향상 ▲AM채널(GA)은 보장성 상품의 점유율 증대 및 완전판매문화 정착 ▲방카슈랑스채널은 신규 제휴기관을 확대하고 연금 및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상품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시장 확대와 가치 제고를 위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ALM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성락 사장은 강평을 통해 "가치관점에서 인정받는 회사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리더들이 결행(決行)의 자세를 갖고 진심이 담긴 열정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구성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식'도 함께 진행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면세점·바이오·식음료… 건설업계 무한도전

국내시장 포화·해외수주 악화 합병 등 신사업 찾아 동분서주

건설사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저유가 여파로 해외에서의 수주환경도 악화된 탓이다. 이에 진출 분야도 바이오, 면세점, 호텔, 식음료 등 비(非)건설업인 경우가 많다.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으로 패션·식음·건설·레저·바이오 등 글로벌 '의식주휴(衣食住休)·바이오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에서 진행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특히 삼성은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산업의 최대주주로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돼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각각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R&D)을 담당한다. 통합 후 삼성물산은 바이오로직스 지분 50%를 보유,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다.

삼성물산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2014년 34조원을 기록한 매출이 2020년 6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건설업은 현재 글로벌 건설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구조적인 성장한계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당장의 시너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도 새로운 사업과 신성장동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는 지난 10일 서울지역 대형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며 본격 면세점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만든 HDC신라면세점은 현대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용산 아이파크몰 4개 층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 면세점을 지을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일찌감치 호텔사업을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삼고 서울과 부산에 있는 하얏트 브랜드 계열의 최고급 부티크 호텔인 파크하얏트 서울과 파크하얏트 부산을 론칭했다. 또 강원도 고성에서 아이파크 콘도도 운영 중이다.

대림그룹 역시 지난해 새로운 비즈니스호텔 브랜드 'GLAD'를 선보이며 호텔사업 확장에 나섰다. 이에 계열사인 대림산업도 호텔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대림그룹은 GLAD를 앞세워 국내에서 4000여 객실 이상을 보유한 호텔 개발·시공·운영 그룹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이 호텔 기획과 개발, 시공을 담당하고 대림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오라관광이 운영·서비스를 맡는 구조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3년 판교신도시에 고급 식음료점이 입점한 스트리트몰 '아브뉴프랑'을 열고 쇼핑몰사업에 진출했다. 아브뉴프랑은 호반건설이 100% 임대하고 관리·운영하는 상업과 임대 사업 브랜드다.

지난 5월에는 광교신도시에 2호점인 '아브뉴프랑 광교'를 개점했다. 아브뉴프랑은 독특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아 성공적인 사업영역 확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명역세권 개발지구에서 3호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한신공영, 세종시 3-3생활권 M6블록 수주

1552가구 2017년 6월 완공

한신공영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세종시 3-3생활권 M6블록 건설공사 4공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9~29층, 19개동, 1552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공사다. 2017년 6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LH는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 분양에 나선다.

서대종합건설·광장이엠씨가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하며 총 공사금액은 1323억원이다. 한신공영 지분은 84.5%에 해당하는 1118억원이다.

한신공영은 세종시에서만 ▲가재마을 11단지 한신휴플러스(696가구) ▲한신휴플러스 리버파크(955가구) ▲한신휴플러스 엘리트파크(687가구) ▲행복도시 LH 5공구(901가구) ▲행복도시 LH 2공구(982가구) ▲세종한신휴시티 오피스텔(421실) 등을 공급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민·관 공사를 합쳐 세종시서 총 8674가구를 공급하게 됐다"며 "성실 시공으로 앞으로 세종시 내 한신공영의 명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오피스텔 5600명 몰려

평균 23.87대 1로 청약 마감

포스코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RM2블록에 공급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오피스텔이 평균 23.87대 1로 마감됐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의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238실 모집에 5681명이 몰렸다.

성재호 포스코건설 분양소장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은 송도에서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으로 설계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앞서 진행된 아파트 청약에서 떨어진 수요자들이 이번 오피스텔 청약에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방문객들로 붐비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오피스텔은 전용 84㎡ 단일 면적에 총 5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각 실에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 주방 다용도실, 안방 드레스룸이 들어서 아파트와 같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A·B타입은 4베이-3룸 설계에 테라스 공간이 조성된다.

21일 당첨자 발표 후 22일과 23일 양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동탄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3차 조감도.

휴가철에도 분양열기 후끈… 청약접수 13곳

| 주간분양 |

화성·하남·시흥 등서 공급 당첨발표 14곳·계약 27곳 견본개관 5곳 등 일정 빼곡

본격 휴가철로 접어들었지만 분양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13곳, 당첨자 발표 14곳, 당첨자 계약 27곳, 견본주택 개관 5곳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금강주택은 22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9블록에 공급하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84~99㎡, 총 252가구다. 커뮤니티 시범단지에 조성되고 GTX·KTX 동탄역(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와 중심상업시설이 인접했다.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도보 거리다.

포스코건설은 23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23블록에서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를 1순위 공급한다. 73~101㎡, 전체 487가구다. 미사강변도시는 서울 강동구와 맞닿아 지하철 2호선 삼성역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2㎞에 불과하다. 특히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는 상일IC가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신안은 같은 날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B2블록 '시흥 목감 신안인스빌'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69~84㎡, 총 576가구로 구성된다. 제3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도로망과 인접했다. 근린공원(예정), 보통천, 중심상업지구가 가깝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다.

동일은 24일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 A7블록에 짓는 '고양 원흥 동일스위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총 1257가구, 84㎡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다. 원흥~강매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이달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흥도초교와 흥도유치원(공립)이 있다. 도래울중·고교가 도보권이다.

신동아건설은 이 날 세종시 3-1생활권 M3블록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3차' 견본주택의 문을 열 계획이다. 84~120㎡, 총 363가구다. 3생활권은 세종시 도시 행정의 중심지로, 세종특별자치 시청과 교육청 등이 들어선다. 단지 바로 앞에 초·중교 예정부지가 있고, 복합문화센터도 가깝다. 인근에 대형마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삼성, 한 발 빠른 '갤노트5'로 설욕 벼른다

**갤럭시S6 예상밖 흥행부진에
아이폰6S 앞서 8월 출시키로
'삼성페이' 서비스도 곧 시작**



갤럭시S6 아이폰 6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당기면서 하반기 애플과 삼성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를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앞선 오는 8월에 출시하면서 하반기 스마트폰 출시를 앞둔 애플과의 경쟁에서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 출시를 앞당긴 것은 갤럭시S6 시리즈가 시장에서 예상보다 낮은 흥행을 보인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S6의 판매량이 반영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이 당초 시장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는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 삼성페이도 같이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페이는 갤럭시S6가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이달 중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은행과 카드사와 협력작업이 늦어지면서 9월로 늦춰졌다. 현재 삼성페이 서비스는 베타 테스트 중이다.

갤럭시노트는 갤럭시S 시리즈보다 화면이 큰 것이 특징이다. 해외 IT 매체들은 이번에 나올 갤럭시노트5의 화면 크기가 전작 갤럭시노트4 보다 0.2인치 커진 5.9인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갤럭시노트2(5.5인치)에서 3로 넘어갈 때처럼 화면 크기를 그대로 둘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5.9인치까지 키우게 되면 사실상 태블릿 수준이 돼 스마트폰 고유의 가치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S펜 기능이 보다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삼성이 음성이나 제스처 명령으로 S펜을 단말기에서 분리하는 특허를 앞서 출원한 만큼 갤럭시노트5에 이 기능을 넣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노트4에 이어 갤럭시S6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은 '엣지(모서리 화면) 모델'은 갤럭시노트5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동시 출격으로 반격을 노리지만 애플이란 벽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애플이 1년 만에 선보이는 스마트폰 신제품인 아이폰6S가 오는 9월 중으로 출시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시리즈는 출시 첫 달임에도 불구하고 출시된 지 6개월이나 지난 아이폰6 시리즈 판매량에 밀렸던 만큼 삼성전자에는 녹록치 않은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 스마트 TV로 실시간 제공하는 '부가정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리모콘 하나로 '야구·뉴스·SNS' 한눈에

삼성 스마트TV 실시간 서비스

삼성전자는 야구·뉴스·연예·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4가지 분야의 정보를 삼성 스마트 TV로 실시간 제공하는 '부가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삼성 TV 리모콘의 '부가정보'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화면 우측에 반투명 창 형태로 제공된다. 랜선이 연결된 2015년 삼성 스마트TV 전 모델에서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TV나 IPTV 시청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야구의 경우 경기 시작 전에는 일정과 출전 할 선수들의 시즌 기록이 제공되며 경기 중에는 전 구장의 경기 현황과 타자와 투수의 시즌 성적 등을 10초마다 업데이트해 보여준다.

이전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야구 정보를 보기 위해 스마트 TV기능을 선택할 경우 화면이 전환되어 드라마 시청이 어려웠으나 이번 서비스로 여러 구장의 야구 경기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뉴스와 연예 영역에서는 인기 뉴스를 실시간으로 선정해 보여줘 TV 시청 중에도 사회 전반 이슈를 확인할 수 있고, 소셜 영역에서는 트위터의 인기 멘션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조한진기자

LG 올레드 TV, 상반기 국내 판매 1만5000대 돌파

**전년 동기대비 10배 이상 증가
하반기 다양한 모델 출격 대기**



LG전자 모델이 매장에서 LG 올레드 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는 자사 올레드 TV가 상반기에 국내 판매량 1만5000대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올해 올레드 TV 상반기 국내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고 프리미엄 TV인 울트라 올레드 TV의 월평균성장률은 150%를 웃돌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월과 6월에는 울트라 올레드 TV의 판매량이 올레드 TV 전체 판매량의 25%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올레드 TV는 올해 초 CES에서 '최고 제품상'을 수상한 이래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 최대 일간지 USA투데이가 운영하는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은 울트라 올레드 TV를 "뛰어난 화질, 블랙 컬러, 시야각 등 올해 테스트한 제품 중 최고"라고 극찬하며 평점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LG 올레드 TV를 선정했다.

미국 AV전문 유통업체 '밸류 일렉트로닉스(Value Electronics)'가 6월에 진행한 TV 화질 비교 평가에서는 65형 LG 울트라 올레드 TV가 1위를 차지하며 '킹 오브 TV(King of TV)'에 선정됐다. 유럽의 '플러스 엑스 어워드(Plus X Award)'에서 LG전자는 77형 LG 울트라 올레드 TV로 '홈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분야에서 '최고 혁신 브랜드'에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하반기에 다양한 디자인과 해상도를 갖춘 올레드 TV 라인업을 선보이며 국내 프리미엄 TV 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상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사장은 "압도적인 화질과 혁신적 디자인을 갖춘 차원이 다른 올레드 TV로 프리미엄 TV의 진정한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박삼구 회장 "실적부진 원인 찾아라"

금호타이어 전략 재정립 지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2015 하반기 임원 전략경영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실적부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19일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2015 하반기 전략경영세미나'를 열고 금호타이어의 전략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양산 위주 정책을 탈피해 품질우선주의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호타이어의 올해 1분기 실적의 악화는 자동차 산업의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유로화 약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경쟁사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질책했다.

박 회장은 "품질, 생산, 기술력, 영업, 관리 전 분야에서 금호타이어의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대책, 설비투자, 연구개발 강화 등 사업 전반의 개혁을 통해 실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영속성을 지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계열사별 맞춤형 전략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재인수에 대해 "채권단과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앞으로 강하고 힘있고 멋있는 금호아시아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BMW 미래재단 기부 이벤트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매칭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사장 김효준)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3·4 라운드에서 '매칭 기부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회 채리티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9일 사측에 따르면 매칭 기부 프로그램이란 BMW 그룹 코리아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기부 프로그램이다. 고객이 기부하는 만큼 BMW 그룹 코리아와 BMW 공식 딜러사,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 기간 중 7번 홀에서 티샷이 '미래재단 채리티 존'에 들어가거나 버디를 잡을 경우 선수와 BMW 그룹 코리아,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및 공식 딜러사에서 20만원씩 기금을 조성한 후 BMW 코리아 미래재단에 기부하게 된다.

/이정필기자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알뜰부부 여름 장 보기 원칙!

첫째,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은 국내산 메밀이다.
둘째, 구수한 강원도 메밀요리 맛 그대로다.
셋째, 정직하게 만들어 믿을 수 있다.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대상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이
2014년 대한민국 식품대전 소비자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산 메밀 사용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은 우리 몸에 좋은 국내산 메밀만을 고집하여 맛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한 제품입니다.

www.bongpyung.com

메밀꽃필무렵 봉평촌 ▼ 검색



최양락, 팽현숙 부부

[주]봉평농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등길 18-10 Tel 033.333.8942

LG화학, 전지사업 방전에 전기차로 재충전

중국 저가 공세 등 2분기 전년대비 적자
전지차 배터리 공급 확대 등 자구책 마련

LG화학의 2분기 전지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하면서 사업 방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LG화학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 수주를 늘려 수익을 개선시킨다는 전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2분기 매출액 5조732억원, 영업이익 5634억원, 당기순이익 352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5조8687억원) 대비 13.6%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96억원, 2267억원에서 올해 2분기 56.7%, 55.6%씩 증가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전지사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영업손실 42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LG화학은 지난 17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소형 리튬이온전지



의 고객인 모바일 업체들의 매출 감소와 전기자동차 전지의 투자 비용 증가로 중대형 전지의 실적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조석제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사진)는 "원형전지는 생산물량은 줄지 않았지만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각형전지는 내부고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노키아로부터의 매출이 줄어 수익성이 악화됐다. 폴리머전지는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수익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LG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G4가 지난 4월 출시됐지만 아이폰6 판매 호조와 중국을 비롯한 저가 스마트폰 업체의 성장으로 LG화학 스마트폰 배터리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LG화학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쓰이는 2차 전지의 분리막 사업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막 사업은 자체 생산보다 외부 조달이 더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분리막은 전지내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 전류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LG화학은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해 수익을 개선시킬 전략이다. LG화학은 지난 2010년 창안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사업 전략적 제휴를 시작으로 이듬해 다이자동차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지난해 상하이자동차, 올해 창청자동차, 난진 진롱, 둥펑상용차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으며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박용만 회장 "급변하는 환경에 도전해야"

두산, 英서 글로벌 비즈니스포럼 참석자 91% "美 금리영향 제한적"



17일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2015 두산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고든 브라운 전 영국총리(오른쪽)의 연설 도중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웃고 있다.

두산(회장 박용만)은 영국 에든버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포럼에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진 스펄링 전 미국 국가경제회의(NEC) 의장,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 인도의 라짐 메리시 재무차관과 아미탑 칸트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도 (바람에 맞춰) 돛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인도 속담과, '목적과 방향 없이는 노력과 용기가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에 이르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묻는 질문에 91%가 "일부 이머징 국가들에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5년 안에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참석자 72%가 "경착륙 가능성은 없지만, 경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정필기자

경남창조혁신센터 출범 100일 두산, 中企제품 72건 무상지원

두산그룹이 지원하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최상기, 이하 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두산은 그동안 혁신센터에서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해주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들이 72건의 시제품을 무상으로 만들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설계 도면만 가져오면 즉석에서 3D 프린트를 활용해 시제품을 무상으로 제작해주고 있다.

창업기업이 겪는 상황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 맞춤형 상담을 하는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그동안 18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 혁신센터는 33개의 중소·벤처 기업에 49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10건의 판로를 지원했다.

지역 중소기업인 성산툴스는 혁신센터의 지원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이달 초 두산중공업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며 10억원의 동반성장펀드 투자를 받았다.

성산툴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터빈의 핵심부품 일부를 국산화했으며 두 건의 특허도 출원했다.

최 혁신센터장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강과 공모전 등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 내 창업이 활발해지고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센터는 출범 100일을 맞아 17일 지역 중소기업인, 예비 창업가와 창업동아리 회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창업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이정필기자

한화넥스트·한화컴파운드 합병

컴파운드사업 일원화 경영 효율성 제고 기대

한화케미칼은 컴파운드 사업 자회사인 한화넥스트와 한화컴파운드(대표이사 정윤환·사진)를 합병해 통합 한화컴파운드를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컴파운드는 자동차와 전기 전자 부품, 건축자재 등에 쓰이는 복합수지의 일종이다.

이번 합병은 분산된 컴파운드 사업을 일원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한화케미칼은 사업 연관성이 높은 한화컴파운드를 자회사로 통합함으로써 수지(한화케미칼), 컴파



운드(한화컴파운드), 성형(한화첨단소재)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경영 효율성과 석유화학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화컴파운드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VC(폴리염화비닐),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틸렌) 등 수지 응용 컴파운드를 생산·판매한다.

생산 제품은 자동차, 전기전자, 건축용 등에 주로 사용되며 여수와 순천에 연산 10만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췄다.

컴파운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6% 내외로 안정적이다.

자동차용 컴파운드 국내 규모는 2007년 40만톤에서 2016년 74만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에서 고급화와 첨단화가 강화되고 건축자재 시장에서도 고급소재로 대체되는 추세다.

한화컴파운드는 수직계열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고자 생산설비와 연구개발(R&D) 조직을 통합하고 제품 다변화를 위한 설비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roman@

프로야구 올스타 숨은 일꾼 '기아차'

19일 기아자동차는 전날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2015 KBO리그 올스타전'에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최우수 선수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올스타전에서 3타수 2안타(1홈런) 2타점으로 맹활약해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강민호 롯데 자이언츠 선수에게 신형 K5를 부상으로 수여했다.

또 시구자로 나선 김응룡 전 감독을 위해 신형 K5를 에스코트 차량으로 제공했다.



'2015 KBO리그 올스타전'에서 MVP로 선정된 강민호 선수(가운데)가 부상으로 신형 K5를 받고 구본능 KBO 총재(왼쪽)와 서보원 기아차 국내마케팅실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MVP 상품·시구자 에스코트 차량 지원

강 선수는 "출시 전부터 직접 타보고 싶던 신형 K5를 받아 기쁘다"며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킨 신형 K5처럼 저 역시 꾸준하게 저만의 색깔을 지닌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 측은 "기아차의 야심작인 신형 K5를 프로야구 팬들 앞에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4년 연속 한국프로야구 자동차부문 공식 후원사로 활동 중인 기아차는 정규시즌 동안 KIA 타이거즈 홈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이색 홈런존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동훈, 김상훈 선수의 은퇴를 기념해 신형 K5의 창문 사이로 공을 주고받는 시구 이벤트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기아차 브랜드를 알렸다. /정용기기자

SKT, 1조7000억대 재난망 사업 수주 우위

8월초 시범사업자 선정
이통3사 물밑 작업 한창

1조7000억원 규모의 PS(Public Safety·공공안전)-LTE 기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시범사업이 이달 중 발주 공고가 나올 예정임에 따라 재난망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난망 구축사업은 예산 문제 등으로 시범사업 공고가 계속 연기돼 왔다.

따라서 망구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이통3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 가운데 SK텔레콤이 재난망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철도통합무선망 사업을 지난 13일 부산교통공사에서 따내면서 재난망 사업 수주에 도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시범사업 발주 이후 7월말 늦어도 8월초까지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강원도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 지역 시범사업은 1지역인 중앙관제센터와 평창, 2지역인 강릉과 정선으로 나뉘어 발주될 예정이다. 안전처는 1지역 센터와 기지국, 단말기를 통합 발주하고 2지역은 기지국과 단말기만 발주한다. 따라서 1지역 수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당초 4월께 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늦어진 만큼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사업에 이어 2017년 2차 확산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다.

재난망 사업은 경찰, 소방, 해경, 군 등 8대 분야 330개 필수기관 약 20만여명이 재난 시에 사용하게 될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망 구축사업이다.

당초 재난망 총 사업 예산안은 1조7000억원이고, 이중 시범사업 예산은 460억원인데 이 중 7.2%가 삭감된 436억원으로 확정됐다.

시범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그 만큼 본사업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재난망 시범 사업자 선정을 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망은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중요하다"면서 "음영지역을 없애야 하는 등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기지국 개수, 코어 망과의 연동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해서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지난 13일 재난망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사업이 SK텔레콤 품 속으로 안기면서 PS-LTE 재난망 사업 수주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억 8000억원 규모로 부산지하철 1호선에 구축하게될 LTE-R 사업은 우리나라 재난망에 사용될 PS-LTE와 표준 측면에서 유사하다. LTE-R은 재난망에서 요구하는 37가지 표준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용이하다. 또한 LTE-R 구축시 고속이동 성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통신 등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향후 재난망 사업자 선정에도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비업체 관계자는 "LTE-R은 PS-LTE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주요 업체들의 관심이 많다"며 "SK텔레콤은 재난망 수주 사업에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SK텔레콤 분당사옥 'T오픈랩'에서 사내 임직원들과 중소·벤처 협력 업체 직원들이 '재난망 테스트베드' 구축 시연을 선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해외로밍폰, 분실해도 요금 걱정 없어요"

SKT 'T안심로밍' 출시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

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분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에 착안해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서 SK텔레콤의 홍보 모델들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도난과 분실시 신고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 출시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고객은 별도의 이용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나 T월드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제 3국 음성 발신과 현지 음성 발신 비정상 사용 건에 적용되며, SK텔레콤이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 로밍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로밍 홈페이지와 T로밍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시럽, 전국 KFC매장서 'O2O 서비스' 선봬

SK플래닛의 모바일 지갑 '시럽(syrup)'이 전국 190개 KFC 매장에서 모바일 멤버십, 쿠폰, 비콘 서비스와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까지 포함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KFC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으면 KFC의 신제품 프로모션과 고객대상 이벤트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KFC가 제공하는 다양한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럽을 통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KFC 매장에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서비스를 적용해 27일부터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제품 관련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다.

이달 초부터 제공중인 새로운 KFC 모바일 멤버십은 시럽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KFC 모바일 멤버십을 통해 전국의 KFC매장을 이용할 때마다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SK플래닛 홍보모델들이 19일 KFC 청계천점에서 시럽의 KFC모바일 멤버십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SK플래닛 제공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도 다양하다.

더불어 SK플래닛은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 '시럽 오더'를 통해 KFC에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혼잡한 시간대에도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한번에 완료할 수 있다.

한편 KFC는 다음달 31일까지 시럽을 통해 모바일 멤버십을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올 여름 신제품인 '후라이아이스크림' 무료 쿠폰과 선착순 무료콜라쿠폰을 제공한다. /정문경 기자

SKT, 바이오포커스·결핵연구원과 '결핵진단기술' 개발 나서

SK텔레콤이 체외진단기기 전문업체 나노엔텍의 자회사 바이오포커스,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과 함께 결핵진단기술 개발·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19일 체결했다.

이번 3자간 MOU는 기존 진단키트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결핵신속진단키트의 개발과 진단시약, 판독기, 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이 결합된 형태의 결핵진단 플랫폼 개발이 핵심이다. 또한 3사는 이번 MOU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의 차원을 넘어 향후 결핵 퇴치를 위한 본격 사업화 과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결핵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서정구 바이오포커스 대표, 김희진 결핵연구원 원장, 김명립 SK텔레콤 체외진단사업본부장이 체결 서약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이번 MOU에서 SK텔레콤은 결핵진단제품의 개발을 책임진다. 또한 결핵환자의 모니터링을 위한 '결핵환자 감염병 관리 시스템'의 개발·구축 등 추가적 지원도 검토 중이다.

결핵연구원은 결핵 진단용 원료 물질 개발 및 임상 평가 역할을 맡게 된다. 바이오포커스는 개발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맡는다.

SK텔레콤의 육태선 신사업추진단장은 "이번 3자간 MOU를 계기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 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LTE비디오포털 외국어 특강, 직접 만나세요

LG유플러스가 LTE비디오포털의 외국어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LTE비디오포털 회원을 상대로 다음 달 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 대표 토익 강사인 김대균 씨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특강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대균 강사는 오프라인 특강에서 토익 만점 비법, 토익 적중 문제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LTE비디오포털 회원은 자신의 어학 실력에 따라 원하는 무료 오프라인 특강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으며, 특강에 참여하는 고객은 휴대전화 거치대와 5000원 상당의 LTE비디오포털 콘텐츠 쿠폰 등 다양한 사은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번 특강은 LTE비디오포털 내 주문형비디오(VOD)로도 무료로 접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CJ, 서울 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벤처·중기 판로 지원
외식·패션 스타트업 발굴 등 '도시 생활형' 산업 육성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서울의 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

CJ는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서울시와 함께 광화문 KT빌딩 1층 드림엔터에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16번째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KT빌딩 1층(1058㎡·메인센터)과 서울지방우정청 5층(1554㎡·입주보육공간)에 각각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CJ는 우선 한류문화 컨벤션·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해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에 힘을 싣는다.

북미·아시아 대상 한류문화 컨벤션 '마마(MAMA·Mnet Asian Music Awards)', '케이-콘(K-CON)' 등과 연계해 벤처·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컨설팅 ▲상품 전시 ▲마케팅·유통 ▲수출계약 상담 등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참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5월에는 케이-콘 2015 재팬에 중소기업 40여곳, 12월 MAMA 홍콩에 60여 곳을 선발해 상품 전시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달 31일부터 8월 2일 열리는 케이-콘 2015 LA에는 중소기업 51곳을 선발, 국제 컨벤션 전문가와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상품 전시·마케팅·해외사업 진출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8~9월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12월 열리는 MAMA 2015 홍콩 중소기업 컨벤션 참여도 지원한다.

CJ는 또한 온라인쇼핑몰인 '카페24'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상품 기획가(MD·약 12명)가 참여하는 유통·전자상거래 상시 멘토링 프로그램 '글로벌 전자상거래 데모데이'를 도입한다. 카페 24는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알리바바, 아마존 등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과 네트워크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원수는 75만명, 해외 직판 사업자는 1만4403개이며 거래규모는 3조원 수준이다.



CJ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계획

벤처·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한류문화 컨벤션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마마(MAMA) + 케이-콘(K-CON) 등 'K-컬쳐' 참가 지원

도시 생활스타일 분야 사업화 지원
식문화 + IT 결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굴·중소상공인 상생
패션 디자이너 및 관련 스타트업 발굴·육성, 제작·유통

CJ그룹은 아울러 외식·패션 등 도시생활 스타일 분야 사업화를 지원한다.

식문화 산업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푸드테크' 기업을 발굴해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맛집 추천·지도 제공 앱, 식당 예약 앱 분야 중소기업 창업을 돕는다. 이들에게는 서울시가 보유한 외식 공공데이터와 외식 창업 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된다.

일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푸드테크 기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CJ는 자체 식문화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조리법과 푸드 스타일링, 매장 관리 등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맞춤형 사업 지원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식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J는 서울디자인재단(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등과 함께 신진 디자이너도 발굴한다. 이들에게 무늬·재단업체를 연결해 주고 패션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디자이너들은 서울센터를 통해 얻은 자신의 패션 시제품을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작품 발표하고 글로벌 패션마켓 참가를 위한 큐레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월 개최 예정인 2016 S/S 서울 패션 위크와 연계해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와 독립 브랜드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신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패션쇼도 기획 중이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는 시제품 제작 지원 연계, 패션·뷰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진 디자이너 프로그램(헤어·메이크업·모델 아카데미 등)을 기획할 계획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의 요람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부탁해' 와인 시리즈 출시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와인 애호가들을 위한 '홈파티를 부탁해'와 '주말을 부탁해'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탁해' 시리즈는 파이니스트 와인 4병을 담은 패키지로, 정상가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온라인 신발 판매 '환불 거부에 먹튀까지'

한국소비자원 조사

전자상거래 분쟁 발생 증가
환불 요구에 연락 끊는 경우도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온라인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했지만 구매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19일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자상거래에서 구입한 신발 관련 불만 721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37.3%를 차지한 269건에 달했다.

특히 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하자·광고와의 차이 등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179건(66.5%)으로 가장 높았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는 51건(7.1%), 수제화임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는 39건(5.4%)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 거부 다음으로 많은 불만은 '늦거나 잘못된 배송'이 전체의 19.4%인 140건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후 환급 지연 불만은 69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이 밖에 해외 브랜드 구매대행 등으로 현금결제를 했으나 배송을 지연시키고 이를 이유로 구매 취소를 요구하면 환불을 늦게 해주거나 연락을 끊은 등의 피해도 접수됐다.

한편 이 기간 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와 직접 구입 등을 포함해 접수한 전체 불만 사례 187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1.4.%(964건)이 품질 자체의 문제였다.

/김성현기자 minus@

'해피버스데이 투 간판' 온라인서 화제

G마켓, 소상공인 응원 영상

G마켓(대표 변광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응원한다는 콘셉트로 제작한 '해피버스데이 투 간판'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유튜브 공개 2주만에 조회수 100만 뷰(view)를 넘어 19일에는 108만 뷰를 기록했다. 페이스북에서도 580만 뷰를 넘겼다.

해당 캠페인 영상에는 G마켓 사업자회원 서비스의 모델인 정준하가 등장한다. G마켓 사업자 회원 중 6월에 개업한 곳을 정준하가 직접 찾아가 케이크 등 생일 선물을 전달하고 깜짝 파티를 열어 주는 내용이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자영업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눈물이 나려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진공-CJ오쇼핑, 우수 中企 살리기 나선다

'글로벌 스타상품' 협약
중기제품 육성·판매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CJ오쇼핑과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글로벌 스타상품'으로 육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육성하고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전국 31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보유 중인 상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글로벌소싱센터에 입점할 제품을 추천할 예정이다.

CJ오쇼핑은 중국과 인도, 터키, 멕시코 등 8개국 진출 홈쇼핑 채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CJ오쇼핑과 중진공은 내년 CJ오쇼핑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상품전'도 열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밀리고 치이는 국산맥주

전달에 이어 매출 하락세
수입산 포함 전체 매출은↑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등
판매 촉진 위해 고군분투



오비맥주의 카스와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등 국산 맥주들이 주류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양한 맛으로 중무장한 수입 맥주에 밀리고 상큼한 과일 맛으로 소주가 젊은 층 입맛까지 사로잡으면서 치이는 형편이다.

19일 A 편의점에 따르면 상반기(1~6월) 국산 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4.23% 하락했다. 같은 기간 맥주(수입+국산) 매출이 13.87%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국산 맥주의 월별 매출은 1월은 전년에 비해 6.4% 떨어졌다가 2월 들어 3.4%로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3.3%, 4월 0.7%, 5월 3.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니 메르스 사태가 있던 6월 들어 14.7%까지 추락했다.

이달 들어(1~17일까지)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메르스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국산 맥주 매출은 전년비 13.7%로 떨어지면서 전달에 이어 두 자릿수 하락세를 유지했다. 반면 수입산을 포함한 맥주 전체 매출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비 10.7% 늘었다.

국산 맥주는 매출 고공행진중인 소주 시장과도 비교된다.

A 편의점에서의 상반기 소주 매출은 전년에 비해 18.77% 상승했다.

월별로는 1월 8.7%, 2월 15.7%, 3월 9.0%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롯데주류가 3월 출시한 과일 소주 순하리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4월 들어 매출이 전년비 18.3%로 뛰더니 5월 35.4%로 급증했다.

6월 메르스 여파로 전달보다는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25.5%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들어 소주 업계 점유율 1위 하이트진로까지 과일 소주 시장에 뛰어들면서 소주 매출은 전년비 40.3%까지 상승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주류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층이 최접전에서 소비하는 시장인 만큼 트렌드를 그대로 나타낸다"며 "국내 맥주가 수입 맥주와 과일 소주에 밀리고 있는 현재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국산 맥주 판매 촉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수입 맥주가 국내 맥주 시장에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을 잠식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출시한 '프리미어'와 'OB 바이젠' 등으로 맥주 맛을 다양화하고 이달 대표적인 카스 마케팅에 주력해 시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수입 맥주 성장에는 편의점 할인 행사의 영향이 크다"며 "다양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해외 유명 맥주컨설팅 업체에 컨설팅도 받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고당도 복숭아, 취향에 따라 골라 드세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부드러운 복숭아와 아삭한 복숭아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고객의 식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경북 청도, 전북 임실에서 수확한 '부드러운 복숭아(4~7입/1박스)'를 9900원에, '아삭한 복숭아(4~7입/1박스)'를 8900원에 오는 22일까지 전 점포에서 판매한다. /뉴시스

아워홈 이승우사장 6개월만에 복귀

"대표 공석 안정화 위한 선택"
최고경영자 노하우 인정



이승우(56·사진) 아워홈 전 사장이 사임 6개월만인 이달 20일 대표이사 사장직에 복귀한다. 구지은 부사장이 지난 2일 이사회에서 보직 해임된 지 약 보름만이다.

19일 아워홈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20일 회사로 출근해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이 사장은 지난 1월 31일 2년여의 임기를 남기고 사임했었다.

이승우 사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LG화학에 입사해 기능재 사업부장과 하우징 솔루션 사업부장, LG하우시스 장식재 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는 5년간 아워홈 최고경영자(CEO)로 근무했다.

이 기간 중국 칭다오·난징·광저우·북경 등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을 이끌고 가정편의식을 개발해 시장을 확장하는 등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구자학 회장의 막내딸인 구지은 구매식사재사업본부장이 입사 11년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하자 회사를 떠났다.

구 부사장은 차기 경영 승계자로 거론됐지만 내부 인사와의 갈등이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구매식사재사업본부장직에서 해임됐다. 올초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원로 임원들과의 불화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어수선해진 회사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구자학 회장이 급하게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상길 기자

커먼그라운드, 일평균 방문객 1만명 돌파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코오롱인더스트리FnC(대표 박동문)는 지난 4월 10일 개장한 컨테이너 복합 쇼핑몰 커먼그라운드의 100일간 하루 평균 방문객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커먼그라운드가 들어선 부지는 기존에 택시차고지로 유동인구가 거의 없던 지역일 뿐 아니라 지하철역에서도 떨어져 있어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기엔 입지가 좋지않던 곳이었다. 하지만 커먼그라운드가 입점하고 자체 추산 20~30대 고객 100만명이 방문했다.

건국대 학생들이 론칭한 액세서리 브랜드 '쥬빌레'는 커먼그라운드 입점 후 5월 한달간 약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남동에 1개 매장을 운영하던 '아날로그 키친'은 4월 커먼그라운드 입점 후 5월에만 매출 1억원을 달성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노스페이스 희망원정대 국토 순례 완주

소외계층에 기부금 전달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대표 성기학)는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15 노스페이스 대한민국 희망원정대' 완주식을 갖고 전남 보성에서 서울까지 19박20일, 501km 국토 순례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완주식에는 이영회 영원아웃도어 부회장과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이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 등이 참석해 93명의 참가대원에게 완주증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희망원정대 대원들이 1Km를 걸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적립한 기금에 노스페이스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더해 사회복지재단에 청소년 소외계층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골프화 전문 숍인숍 매장 늘린다

금강제화, 골프화 매장 확대
영등포·부산 등에 신규 오픈

금강제화(대표 김경덕)는 서울 명동과 강남에 영등포, 대구, 부산에 골프화 전문 숍인숍 매장 3곳을 신규 오픈하며 골프화의 확대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금강제화는 최근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으면서 기능성에 패션성이 가미된 다양한 디자인의 골프화를 찾는 20~30대 젊은 층과 여성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금강제화의 골프화 전문 숍인숍 매장 5곳에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해외 브랜드 골프화, 아메리칸 정통 골프 브랜드 PGA Tour의 골프화와 의류, 덴마크 슈즈 브랜드 에코 골프화 등을 내놓았다. /박상길 기자

네파, 젊은 세대와 소통 나선다

선화예고와 산학협력 체결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박창근)는 최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리서치 활동·트랜드 분석 등을 위해 선화예술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네파는 선화예고 학생들의 2015 S/S 제품과 디자인 리뷰를 시작으로 제품 개발 시 반영하는 최근 젊은 세대의 성향,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아이디어 등을 신제품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네파는 지난해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패션 트렌드 분석과 신소재·신기술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관광公 '사시사철 주말여행' 발간

3년간 추천 명소 정보 집대성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년간 매월 추천한 '이달의 가볼 만한 곳' 정보를 모아 '사시사철 주말여행 프로젝트'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사시사철 주말여행 프로젝트'는 제철에 가야 좋은 여행지 100곳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이다. 메인 여행지와 함께 그곳에서 가보면 좋을 추천 여행지 400여 곳도 별도로 알려준다. 계절별 찾아보기는 기본이며 팔도벚꽃축제, 도시야경, 힐링, 한옥마을 등 테마별로 손쉽게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각각의 여행지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작가들이 3년간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낸 곳들이다. 여행지마다 당일, 1박2일 등 따라만 가면 여행이 완성되는 추천여행 코스, 숙박과 맛집에 대한 엄선된 정보까지 알차게 담았다. '사시사철 주말여행 프로젝트'를 만나는 순간 언제, 어디로 여행을 갈지에 대한 고민이 스르르 풀리게 될 것이다.

이책은 전국 서점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1만6000원이다. /최치선기자

방콕 '트레블+레저' 톱10 도시 선정

태국관광청 홍보 결실


새벽 사원의 야경. /태국관광청 제공

태국의 방콕이 2015 트레블+레저 매거진 설문에서 Top 10 세계 최고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들 중 방콕은 6위에 올랐으며 아시아 도시로는 3위다.

트레블+레져 독자들은 문화, 음식, 친절도, 쇼핑, 도시의 랜드마크 등을 기준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도시들을 평가했으며 방콕은 분주함, 거리 음식 그리고 과거의 문화와 현대적 호화로움의 조화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화로운 사원 방문과 차오 프라야 강 투어를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것으로 꼽았다.

태국정부관광청은 방콕을 문화체험과 세계적 수준의 다이닝, 쇼핑을 원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홍보해오고 있다.

국제마케팅 부청장은 "방콕이 매년 높은 순위에 오르는 것은 도시의 넘치는 흥취, 따뜻한 환대와 독특한 태국의 정서가 주는 매력 때문"이라며 "쇼핑, 음식, 유흥 등 끝없는 즐길 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모든 연령의 여행객들에게 훌륭한 여행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치선기자

이대목동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개소

통합치료 맞춤 서비스 제공



이대목동병원(병원장 : 유권)이 크론병과 궤양성 장질환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6일 염증성장질환센터를 개소했다.

이대목동병원염증성장질환센터는 이러한 질병의 특징을 반영해 여러 임상과가 모여 다학제 통합 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대목동병원염증성장질환센터는 환자들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후 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와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환자 자조 모임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 온 '이화 크론 & UC 가족 모임'을 활성화해 환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질병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복현명기자 hmbok@

상명대 총장, 안희정 지사와 간담회

행정분야 전반 논의

상명대학교 구기헌 총장은 17일 오전 천안캠퍼스 총장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상명대는 천안캠퍼스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구 총장은 안 지사와 행정이라는 분야의 전반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안희정 도지사는 이후 학술대회 첫 번째 Special Session에서 '좋은 행정과 도지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행정학회 임도빈 회장 등과 대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도지사의 역할, 정치와 행정의 차이, 도정수행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현명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는 지난 16일 지하철 공덕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다시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제공

건보공단, 다시 시민 속으로

서울본부 '찾아가는 서비스' 지하철 공덕역서 다시 열어 기초건강 측정·상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16일 마포구 공덕역에서 지하철 이용 고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로 일시적 중단됐던 건강측정과 건강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재개했다.

'서울시 한의사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기초 건강측정,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현대인의 질병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관리 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최근 메르스 감염관리 방안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그로바나 시계사면 명품 펜이 '덤'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 내달 9일까지 전고객 증정

스위스 시계 브랜드 그로바나 공식 수입 유통사인 ㈜코이 컴퍼니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그로바나 홈페이지 또는 백화점에서 그로바나 시계를 구매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그로바나 공식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스위스 필기구 브랜드 '랜드스케이프' 볼펜을 주는 사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백화점에는 롯데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용산점에 입점해 있다.

그로바나는 스위스 텐니켄의 자체 공장 생산라인을 통해 모든 제품이 수작업으로 조립된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 일본 등 전세계 7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



모니터링·신메뉴 제안… 서포터즈 찾습니다

강강술래

29일까지 제1기 18명 선발 내달 1일부터 1년간 활동 모임땐 교통비·식사 제공

외식문화기업 (주)전한(대표 최종만)의 숯불구이한식전문점 강강술래가 이달 29일까지 제1기 '주부·대학생 강강술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매장별로 2~4인씩 총 18명을 선발한다.

강강술래 서포터즈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1년 동안 활동하며 매월 1회 정기모임과 함께 메뉴·서비스 개선과 신메뉴 제안, 매장 모니터링, 미스터리 쇼퍼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강강술래 기프트카드(10만원) 증정, 시즌메뉴·신메뉴 시식기회 제공, 모임·행사 시 교통비와 식사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500㎖/10봉/20인분)는 3만5700원, 칠칠한우떡갈비세트(360g×3박스)는 3만3000원에 각각 50% 할인 판매한다.

곰탕은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보관이 가능하다.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어 캠핑이나 바캉스 간편식으로도 좋다.

떡갈비는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해 한 끼 식사대용은 물론 영양간식과 술안주, 캠핑 먹거리로도 잘 어울린다. /박상길기자

연기 잘하는 것보다 호감얻는 배우되고파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 **이 주 승**



2015년 상반기를 빛낸 신스틸러 중 하나가 배우 이주승(27)이다. 주연은 아니지만 맡은 역할마다 굵직한 존재감을 남겼다. '식샤를 합시다2'에서는 미스테리를 간직한 인물로 극에 궁금증을 더했고, '프로듀사'에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을 선사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SBS 주말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에서는 하지원과 남매로 출연해 '케미'(인물간의 조화)를 뿜어내고 있다. 이전 작품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작품에 출연하고 있지만, 활약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 작품서 돋보이는 것보다 조화 추구
> 'TV 틀면 나온다'고 듣는 것이 목표

이주승은 이제 갓 드라마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크고 작은 독립영화에서 연기를 해왔다.

"고등학생 때 한 친구가 단편영화를 찍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역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연기를 알게 됐죠. 이후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무작정 찾아다니며 연기할 사람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다녔죠."

2009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제작연구과정 장편 프로젝트인 '장례식의 멤버'에서 주연을 맡았다.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주목 받았고, 이주승의 이름도 알려졌다. 독립영화에서의 활약으로 2013년 KBS2 단막극 '내 친구는 아직 살아있다'에 출연했다. 이후 첫 장편인 '고교처세왕'을 시작으로 '아이언맨' '피노키오' 등으로 브라운관에서도 재능을 빛냈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필모그래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음에도 정작 연기에 자신이 없다고 했다.

"드라마를 시작하고는 항상 두렵고 불안했어요. 방금 한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다시 하자는 말을 못하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운 때문인 것 같아요. 운 좋게 시청률이 좋은 작품을 만났고, 맡은 캐릭터가 독특했던 거죠. 작품 시작할 때마다 돋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분들과 조화를 이루려고 해요."

조화를 추구하는 이주승은 같이 작품을 했던 사람들과 친분이 깊다. '누나'에 함께 출연한 성유리와의 깜짝 친분은 한동안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현재 엠넷 '쇼미더머니4'에서 뛰어난 랩실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앤덥과도 친분이 두텁다.

"앤덥은 영화 '사브라'에서 처음 만났어요. '쇼미더머니'를 즐겨 보는데 항상 앤덥에게 나가보라고 했죠. 랩을 잘 하니까요. 안 나갈거라고 했으면서 이번 시즌에 나간 줄도 몰랐어요."(웃음)

그와 친한 친구들은 발연기라며 놀리지만, 이주승은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다. 쉬지 않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쉴 생각은 전혀 없다.

"'TV를 틀면 나온다'는 말을 듣는 게 목표에요. 연기 잘하는 배우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난 저 배우 좋아'라는 말이 좋거든요. 배우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연기에도 집중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유해진 선배님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배우니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음악축제

'열린 음악의 날' 7월25일 서울 일대서 열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잠시 미뤄졌던 '열린 음악의 날'이 오는 25일 서울 일대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1982년 프랑스 파리에서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자크 랑의 제안으로 시작된 '열린 음악의 날'은 2013년 전 세계 108개국 726개 도시에서 진행될 정도로 세계적인 라이브 음악축제로 성장했다. 평소 음악연주가 어려운 곳에서 뮤지션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무료 공연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음악을 제공해 음악을 통한 문화시민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프로와 아마추어,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수많은 음악인들의 연주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축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린다. 클래식 전문 연



지난해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펼쳐진 '열린음악의 날' 행사모습.

주단체 '서울튜티앙상블'이 마포 늘장 정원 뒤편에서 클래식 공연을 펼치는 것을 비롯해 50대 전업주부들로 구성된 '맘마미아 밴드'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공연, 성북구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의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공연 등 서울 일대 15곳에서 무료공연이 펼쳐진다. 이를 위해 70여개 팀 1000여 명이 참가신청을 냈다.

특히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제23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와 연계해 음악공연뿐만 아니라 연극, 퍼레이드 등 더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2015 열린 음악의 날' 최종 라인업과 자세한 공연 정보는 '열린 음악의 날' 공식 홈페이지 (http://www.musicdayinkorea.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395-9356

/김민준기자 mjkim@

star bag

열애는 YES, 결혼은 NO



배우 **곽도원**이 배우 장소연과의 열애설·결혼설에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곽도원과 장소연이 최근 '라디오스타'에 같이 출연한 것을 인연으로 만남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소극장 공연 전국투어 돌입



가수 **이적**이 소극장공연 '무대'로 전국투어에 들어간다.

8월 말 부천을 시작으로 대구, 김해, 용인, 전주, 수원, 안양, 부산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열렸던 이적의 소극장 공연은 예매 시작 2분 만에 전석 매진된 바 있다.

반전 매력 티저 공개



가수 **앤씨아**가 새 싱글 '바닐라 쉐이크'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감을 흑백 화면으로 담은 20초 분량의 영상이다.

기존의 귀엽고 상큼했던 이미지와는 상반된 반전 매력을 담고 있다. 앤씨아의 새 싱글 '바닐라 쉐이크'는 20일 발매된다.

1년 반만에 안방 복귀



배우 **홍수현**이 MBC 새 주말드라마 '엄마'로 안방에 복귀한다.

홍수현은 세상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재는 8학군 출신 의류 회사원 이세령 역으로 출연한다.

이상형과 거리가 먼 김영재(김석훈)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인물이다. 오는 9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무더운 여름, 록페스티벌로 떠나자

2년 만에 돌아온 안산M밸리, 관객 편의성 극대화
10주년 맞은 펜타포트, 전설적 뮤지션 한 자리에

다시 록페스티벌의 계절이 돌아왔다.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이하 안산M밸리)과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 풍성한 라인업으로 관객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안산M밸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열린다. 올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 편의성 극대화다. 2013년 안산 대부도로 공연 장소를 옮긴 뒤 제기된 불편한 점을 최대한 반영했다. 매표소와 셔틀버스 승하자창을 신설하는 등 행사장에 변화를 줘 관객의 도보 동선을 대폭 줄였다. 모기 척결을 위한 방역 작업, 그리고 우천시를 대비한 잔디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라인업도 여느 해 못지않다. 헤드라이너로는 너바나 출신 데이브 그롤이 이끄는 록 밴드 푸 파이터스, 일렉트로닉 듀오 케미컬 브라더스, 전 오아시스 출신의 노엘 갤러거가 무대에 오른다. 인기 절정의 EDM 아티스트 데드마우스, 40년째 활동 중인 헤비메탈의 전설 모터헤드 등 해외 아티스트들도 만날 수 있다.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이디오테잎, 혁오 등 국내 인디 신의 스타 뮤지션들도 총출동한다.

펜타포트는 1999년 인천에서 처음 시작한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의 뒤를 이어 2006년 첫 출범했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공연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인천 송도 펜타포트 파크(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10주년에 걸맞게 국내외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해외에서는 전 세계 1억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독일 출신의 스콜피온스, 케미컬 브라더스와 함께 일렉트로닉 신을 이끌고 있는 프로디지가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른다. 2013년 펜타포트 무대에 선 스틸하트, 브릿팝의 신성 쿡스, 영국의 모던 록 밴드 뮤, 일본의 에고래핑 등도 공연을 펼친다.

국내 뮤지션으로는 서태지가 헤드라이너로 참가해 주목된다. 서태지가 록페스티벌 무대에 서는 것은 자신이 주최했던 ETP 페스티벌을 제외하면 펜타포트가 처음이다. 타이거JK, 윤미래와의 합동 공연도 펼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신해철의 추모 무대로 마련됐다. 넥스트 멤버들과 함께 김바다, 노브레인 이성우, 크래쉬 안흥찬, 홍경민, 이현섭이 보컬로 참여한다.

이밖에도 김창완 밴드, YB, 김사랑, 윈디시티, 십센치 등 국내 최정상의 뮤지션들이 펜타포트를 찾는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SNS 스타병에 걸린 남자친구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 10분

지난주 1승을 차지한 '갈아 치우는 남자'에게 여러 도전자들이 나선다. 집 밖에서는 신사인 척 하면서 집에만 오면 더러운 선물을 주는 남편의 실체를 밝히고 싶다는 결혼 20년차 주부, 8명의 여자와 불 같은 사랑을 했지만 평균 일주일 만에 차인 20대 남자, SNS에 미쳐서 사람들과 눈만 마주쳐도 다 자기 팬인 줄 아는 스타병에 걸린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21살 여대생이 고민을 들고 온다.

/정리=하희철 기자 bbuheng@

◆ SBS '힐링캠프'

오후 11시 15분

4주년 특집 마지막 이야기. MC들은 각자 힐링캠프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고백한다. 성유리는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결국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보이고 만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 40분

'아시아의 별' 보아가 냉장고를 공개한다. 요리에 눈을 뜬 어머니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특별 요리와 탄수화물 마니아인 자신을 위한 요리를 셰프들에게 부탁한다.



◆ JTBC '비정상회담'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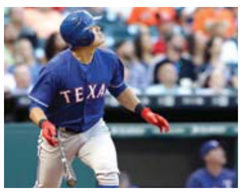
G11은 세계의 흥미로운 신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자국의 신화를 설명하던 알베르토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19금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하고 만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86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1 (재) 30 헬로 코코몽(1·2)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73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26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30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재)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50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46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절대비법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너를 기억해 (9회)	00 화정 (29회)	00 상류사회 (13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천일의 앤>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0 우리 생애 마지막 여름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15 MBC 뉴스 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4회) (재)		55 주문을 걸어 (1회)			
19시	55 JTBC 뉴스룸	40 리틀빅 히어로 (42회) (재)		00 나는 자연인이다 (12회)	30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72회)	00 오늘 뭐 먹지? (81·80회)	00 와일드 24: 아프리카 사바나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36회)	40 신분을 숨겨라 (10회) (재)	15 한식대첩 3 (9회)	00 <순간포착!위험한 동물들> (1회)		
22시			25 주문을 걸어 (1회)	00 사이언스 오브 데인저 (5·6회)	00 다이하드 4.0	◆ 메이저리그
23시	00 비정상회담 (55회)	00 신분을 숨겨라 (11회)	25 오늘 뭐 먹지? (81회)	00 <사상 최악의 참사> 이탈리아 바이온트댐 산사태		텍사스 vs 휴스턴 (03:10) 피츠버그 vs 밀워키 (03:10)
24시	30 화이트 스완 (8회)	20 코미디 빅리그 (129회) (재)	10 MAPS (4회)	00 악어의 모정	40 이끼	LA다저스 vs 워싱턴 (02:35)

자고 일어나면 순위 역전… 후반기 더 뜨겁다

프로야구 막내 KT 변수
7월 10개팀 중 승률 최고

프로야구 10개구단이 올스타전 휴식기를 마치고 21일부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후반기에 돌입한다.

올해 프로야구는 역대 가장 뜨거운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후반기에 각 구단은 많게는 63경기, 적게는 57경기를 치른다.

통합 5연패를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는 4년 연속 1위로 전반기를 마쳤다. 이어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가 6월부터 4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3강을 형성했다. 삼성과 2위 두산은 1게임 차, 3위 NC는 1.5게임 차다.

중위권을 형성한 4위 넥센 히어로즈, 5위 한화 이글스, 6위 SK 와이번스의 경쟁도 뜨겁다. 한화는 넥센을 1.5게임 차로 추격 중이고, SK 역시 넥센에 2.5게임 차다.

하위권으로 밀린 7위 KIA 타이거즈, 8위 롯데 자이언츠, 9위 LG 트윈스도 포스트시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KIA는 포스트시즌 막차를 탈 수 있는 5위와 5게임 차 간격을 두고 있다. 롯데는 KIA와 0.5게임 차, LG는 KIA와 2게임 차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가시권에 있다.

이들 하위권 팀은 지난해 LG가 전반기를 4위 롯데에 4.5게임 차 뒤진 7위로 마치고도 후반기에 맹추격해 4위로 포스트시즌에 나선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다.

각 구단이 순위 싸움의 변수로 꼽은 건 '막내' KT 위즈다. 4월 30일까지 단 3승(22패)을 거둔 KT는 5월 7승 20패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이더니 6월에는 11승(12패)을 거뒀다. 7월에는 11경기에서 7승(4패)을 거두며 삼성, 두산과 함께 7월 승률 공동 선두를 달렸다.

9개 구단을 상대로 모두 승리해 본 경험은, 후반기에도 KT에 힘이 될 전망이다.

개인 성적에서는 지난해 52홈런을 쳐 11년 만에 50홈런 시대를 연 박병호(넥센)가 2년 연속 50홈런을 달성할 수 있을지다. 유희관(12승·두산)은 1999년 정민태 이후 16년 만의 토종 20승 투수 탄생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18일 오후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올스타전 드림팀 대 나눔팀 경기에서 드림올스타팀이 나눔올스타팀을 6-3으로 꺾고 승리한 뒤 화려한 불꽃쇼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후반기 첫 경기 멀티히트·도루

강정호도 1안타 신고



'추추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추신수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서 8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2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첫 도루도 생산했다.

추신수는 0-0으로 맞선 2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휴스턴 선발 스캇 펠드만의 시속 88마일(142㎞)짜리 초구 커터를 공략해 중전 안타를 쳤다. 후속타 불발로 추가 진루는 못했다.

2-0으로 앞선 4회에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절묘한 기습 번트로 출루한 데 이어 후속타자 때 2루로 도루했다. 하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홈을 밟지는 못했다.

6회에는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1타점을 올렸다. 8회에도 희생번트로 1루주자를 2루로 보냈다.

극심한 부진으로 전반기 타율을 0.221로 마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27(309타수 70안타)로 올랐다. 텍사스는 접전 끝에 7-6으로 승리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 선발로 나와 5회 교체됐다. 이날 기록은 2타수 1안타 1볼넷 1삼진이다.

2-0으로 앞선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친 강정호는 상대 실책까지 겹쳐 2루까지 진루했다. 3회에는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3-5로 역전당한 5회초 2사 1루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뒤 교체됐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69에서 0.271(229타수 62안타)로 올라갔다. 피츠버그는 5-8로 패했다.

/김민준 기자

강풍에 폭우 만난 '디오픈'

2R까지 더스틴 존슨 단독 1위

더스틴 존슨(미국·사진)이 제144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 2라운드를 단독 1위로 마무리했다.

존슨은 18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 올드코스(파72·7297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2라운드 경기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가 된 존슨은 9언더파 135타로 단독 2위인 대니 윌렛(잉글랜드)을 1타 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로 대회 반환점을 돌았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날 3라운드가 끝났어야 하지만 폭우와 강풍 때문에 경기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개막 사흘간 2라운드까지 소화했다. 이로써 올해 브리티시오픈은 19일 3라운드에 이어 20일 4라운드로 일정이 하루씩 미뤄졌다.

1999년 이 대회 우승자 폴 로리(스코틀랜드)가 8언더파 136타로 단독 3위, 잭 존슨(미국)과 애덤 스콧, 제이슨 데이(이상 호주),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 등이 7언더파 137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US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컷 탈락의 쓴잔을 들었다.

재미동포 케빈 나(32)는 2언더파 142타, 공동 39위로 3라운드에 진출했다. 안병훈(24)은 2오버파 146타, 양건(21)은 6오버파 150타로 컷 탈락했다.

/김민준 기자





손연재가 19일 오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15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리본 연기를 하고 있다. /지종철씨 제공

손연재, 리듬체조 선발전 1·2차 합계 5위

추천선수로 세계선수권 티켓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리듬체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1위에 올랐다.

손연재는 19일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필승주체육관에서 열린 리듬체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후프(17.650점)-볼(18.150점)-곤봉(17.900점)-리본(17.150점) 4종목 합계 70.85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다애(21·세종대)로 63.050점, 3위는 천송이(18·세종고)로 62.600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손연재는 지난 4월 18~19일 이틀간 펼쳐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발목 부상으로 둘째 날 경기를 기권한 탓에 1차 선발전 평균 점수는 36.050점에 그치며 1·2차 선발전 합계 점수는 106.900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한체조협회는 2차 선발전이 끝난 직후 회의를 열고 메달을 딸 확률이 있는 우수 선수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손연재에게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주기로 했다. 이로써 손연재는 오는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 한국대표로 출전한다.

손연재 외에도 1·2차 합계 1위에 오른 천송이(125.225점), 2위를 차지한 이다애(124.125점)가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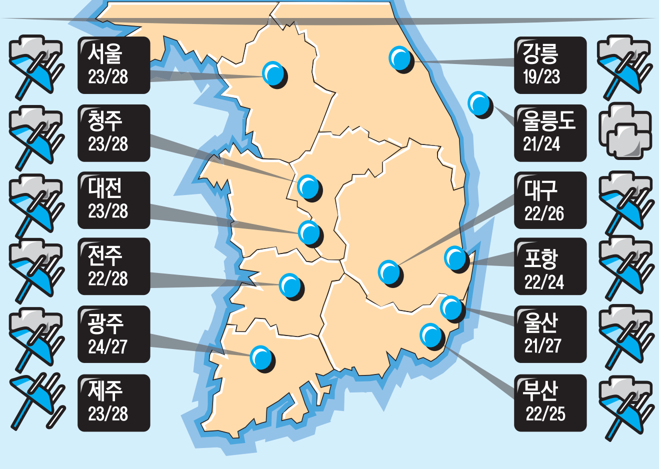
한편 손연재는 21일 전지훈련지인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국, 소피아 월드컵(8월 14~16일), 카잔 월드컵(8월 21~23일)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날씨

7/20 월 일출시각 05:26 일몰시각 19:5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8	2	9		
						6	2	8
					7			
					9			5
1				7	3			
6		7	8	2				
5	1					2	9	
	6					1		7
	9		2				4	3

		4		9				
			7	3			9	
9			2					
	9	1						6
6	7					5	2	9
							3	
				4		6		3
	3			7	2			8
			9	8		4	5	

스도쿠 정답

3	4	6	5	8	2	9	7	1
9	7	5	3	4	1	6	2	8
8	2	1	6	9	7	3	5	4
4	8	2	1	6	9	7	3	5
1	5	9	4	7	3	8	6	2
6	3	7	8	2	5	4	1	9
5	1	4	7	3	8	2	9	6
2	6	3	9	5	4	1	8	7
7	9	8	2	1	6	5	4	3

3	2	4	8	9	1	7	6	5
1	5	8	7	3	6	2	9	4
9	6	7	2	5	4	3	8	1
5	9	1	3	2	7	8	4	6
6	7	3	4	1	8	5	2	9
8	4	2	5	6	9	1	3	7
2	8	9	1	4	5	6	7	3
4	3	5	6	7	2	9	1	8
7	1	6	9	8	3	4	5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Samsung C&T Corporation and Cheil Fabric Successfully Merged…But Long Way To Go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공…여러가지 난제 대기>

Merging of Samsung C&T Corporation and Cheil Fabric was approved on the 17th at the share holders general meeting.

The proposal was accepted but it's too early to be relieved. That is due to the problems that lie ahead such as the appraisal right and Elliot Management's legal battle.

The share holders who have opposed before the general meeting are able to appeal their stance from the 17th to the 6th of next month.

Elliot Management has a high possibility to randomly select the merging percentage and claim a nulity suit.



최치훈(왼쪽)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 안건 등을 주주 결의에 부치는 임시 주주총회를 마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지난 1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합병안이 통과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 주식매수청구권,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법정 공방 등 쉽지 않은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총에 앞서 반대의사를 통보한 주주들은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엘리엇은 우선주 합병비율 임의적 산정, 자사주 처분 등을 문제삼아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부동산 처분·아들 직장문제 문의합니다
매매 어려워… 유통·서비스업 찾으시길

cyzh 여자 57년 10월 11일 음력 14~15시경
남자 54년 8월 1일 음력 4시경
아들 86년 4월 8일 양력 4시 8분

Q 2001년 파주에서 51평을 분양 받았는데 조금 올랐을 때 팔려고 했으나 못 팔고 지금껏 왔는데 지금 이라도 팔고 다른데 돈을 보태어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요? 남편은 들어가 살자고 하나 시골이라고 자녀들도 싫어하고 지금은 서울에 전세도 살지 못 할 만큼 가격이 떨어져 있어 속상 합니다. 서울 집은 전세금을 계속 올려 주어야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은 2, 3개월을 못 견디고 직업을 자꾸 바꾸는데 지금은 캐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업이 괜찮을까요? 또 한 장가는 갈수 있는지요? 좋은 조언 꼭 좀 부탁 합니다~^^

A 운칠기삼(運七氣三)이란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으나 모든 걸 운에 돼가는 대로 맡겨 놓고 하늘이 정하는 대로 운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군이 전장에서 적과 싸울 때 운에만 맡긴다면 어려운 병법을 익히고 작전을 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운이 나쁘게 되면 그것을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기에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인수(印綬:나를 생해주는 오행)는 부동산을 매매 할 수 있거나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문서 운을 말하는데 운기가 부족하니 당분간 매매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의 전세 값은 계속 오르고 파주에 아파트는 매기가 없는 가운데 다른데서 돈을 보탤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나가야할 돈은 많아지고 들어 올 것은 없는 실정이라면 과감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돈의 지출을 조금이라도 막는 방법입니다. 지금 한 얘기는 다들 아는 얘기이나 줄일 곳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면 정말 막막한 삶이겠으나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86년생 아드님도 가정의 경제가 힘든 와중에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고통을 감래 하지 못하고 이직이 잦다면 그 또한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아드님의 성정은 자존심에 상처를 용납하지 않고 임사즉결(臨事卽決)하며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틀려도 밀고 나가는 편이라 이직이 잦다고 보는데 장점으로 의리 때문에 약자 편에 서나 손해 보기 쉽고 변화가 무쌍합니다. 유통업 서비스업 등 움직임이 다양한 직업으로 당분간은 있게 됩니다. 간여지동(干與支同: 천간과 지지가 같음)으로 비견(比肩:나와 동급)이 서로 어깨를 밀어내는 형국에 처하여 부부간 각거(各居)할 수 있으므로 결혼할 때 궁합을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0일 (음 6월 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해야 할 일은 아직 너무나도 많습니다. **60년생**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2년생**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84년생** 귀하에게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소 — **49년생** 약간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하루입니다. **61년생** 대인관계를 주의하세요. **73년생** 작은 트러블이 일어날 것입니다. **85년생**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쯤은 헤아려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호랑이 — **50년생** 주위와 보조를 맞추며 업무에 임하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62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74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86년생**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토끼 — **51년생**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63년생**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습니다. **75년생**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87년생** 지나친 음주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용 — **52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중개인을 통하세요. **64년생** 옳은 일이 아니나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76년생**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88년생** 남녀간의 일에는 신중하세요.

뱀 — **53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65년생** 자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77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길합니다. **89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말 — **54년생**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66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78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됩니다. **9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써야 할 시기입니다.

양 — **55년생** 좋을 때도 있는것 처럼 나쁠때도 있는 법입니다. **67년생** 할 일이 아직도 태산입니다. **79년생**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91년생** 친구들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원숭이 — **56년생** 귀하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세요. **68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80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각별히 신경 쓰세요. **92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도 마세요.

닭 — **57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69년생** 시작부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81년생**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93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개 — **58년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세요. **70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면 앞길이 평탄할 것입니다. **82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4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돼지 — **59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날 것입니다. **71년생** 잠시 쉬는 것도 좋겠습니다. **83년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95년생** 어렵게 곤경을 빠져나오니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올 상반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재고주택과 수도권 매매거래 시장이 일제히 회복세로 돌아섰다. 신축주택에 비해 낮은 투자성과 주거 만족도 때문에 외면 받던 재고주택은 전셋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 지방보다 위축됐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전셋값에 비해 제자리걸음만 하던 집값도 거래가 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2015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거래·가격·공급 측면에서 '트리플'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매매가격이 올랐고, 주택 공급도 증가했다. 상반기 주택 실거래량은 61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 전국 집값은 평균 1.8%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3.23% 상승했다. 아파트 분양 공급량은 총 19만5000여 가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다.

이러한 트리플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한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지표 상승을 견인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리 변동성과 저성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거시경제의 회복 정도를 고려해 볼 때 금리 상승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늘어난 거래량에 비해 집값 상승률은 과거와 달리 미미한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의 증가와 집값 회복력이 서로 상관성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주택 거래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으며 전체 재고 중 실질적인 주택 거래 회전율도 사실상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실수요 매매전환을 유도한 전셋값 상승세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최근 급증한 신축주택 공급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몇 년째 공급이 크게 늘어난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후 공급 과잉에 따른 일시적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종합해보면 하반기 주택시장은 전세난 여파로 실수요 주택 거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보다 집값 상승폭은 낮아질 전망이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불안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물산 합병 국가경제에 도움될까?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됐지만 삼성의 '득과 실'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다.

지난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는 오전 7시부터 삼성물산 관계자와 주주, 취재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비율을 두고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합병을 찬성할 사람이 누가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아가신 선대회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런데 결론은 의외였다. 문제를 논하는 소액주주가 상당수였지만 삼성이 잘돼야 한다는 점에서 "합병비율이 불합리하지만 할 수 없이 동의는 한다"는 식의 기조가 많았다.

주주들이 찬성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합병비율까지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성격의 발언을 한 것에 삼성 수뇌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이번 합병안 통과의 변수로 작용했던 소액주주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다. 삼성물산은 '합병 비율'을 지적하는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향후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2020년 예상 매출의 10%인 6조원이 합병에 따른 시너지로 창출될 것"이라며 "건설분야 토목, 플랜트, 주택 등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이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합병안 통과 소식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는 각각 7.73%, 10.39%로 폭락했다. 합병이 부결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던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가 전망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엘리엇은 물론 소액주주들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며 양사를 합쳐 1조 50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번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세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대내외의 지적도 삼성의 이미지에 타격을 안겼다. 이 부회장이 이번 합병을 통해 단번에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장악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 반대가 매국이고 합병 찬성이 애국이라는 '애국심 마케팅'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간기업의 합병문제를 국익으로 포장하는 분위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국수주의 국가로 보게 해 향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떠안고 가야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합병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지 잠재적 경제효과의 가치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인사

■ 기상청
◇4급 전보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백선균
■ 문화재청
◇4급 승진 ▷대변인실 이선준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김용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손여원
■ 통일부
◇부이사관 승진 ▷통일준비위원회 기획연구부장 서두현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장 김기혁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박형일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엄형률 ▷통일정책실 고인곤 ▷통일정책실 최원연 ▷정세분석국 김자영 ▷정세분석국 박원재 ▷기획조정실 김영필
■ KBS
▷뉴미디어기획본부장 김홍식
■ 서울신문
▷부사장 윤여권 ▷이사 겸 주필 이경형 ▷이사 곽태헌 ▷감사 이목희 ▷논설실장 손성진
■ 이데일리
▷편집 보도국 편집총괄에디터 전명수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장 이종태 ▷의과대학 교무담당부학장 최석진 ▷〃 학생담당부학장 정순호 ▷〃 기획담당부학장 양영일 ▷〃 연구담당부학장 최인학 ▷〃 교무담당 부학장보 장원희 ▷입학관리처장 이성범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최용선 ▷디지털정보원장 황원주 ▷인제미디어센터장 하상필 ▷교수학습개발원장 허도성 ▷교수학습개발원 부원장 김상균 ▷입학관리처 부장 이명섭
◇부산은행 <부실점장 승진> ▲괴정동지점 이승철 ▲영도동삼동지점 이찬일 ▲명장동지점 윤영균 ▲야음동지점 박묘재 <부실점장 전보> ▲울산영업부 김성주 ▲해운대지점 황명식 ▲센텀파크지점 김수경 <3급 승진> ▲대신동지점 서민철 ▲범내골지점 박점순 ▲수영지점 정문철 ▲연산동지점 김부일 ▲양정동지점 강태욱 ▲연천지점 김형석 ▲감전동지점 장원양 ▲기장지점 이화진 ▲부산시청지점 이승익 ▲메트로자이지점 임청미 ▲남양산지점 이헌철 ▲구로디지털지점 김점환 ▲대구영업부 김종한 ▲마케팅부 이정현 ▲사상공단지점 배종철 ▲여신심사부 신재현 ▲정보보호부 옥평석

社說

삼성이 던져준 꿀 케이크

제일모직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를 열고 삼성물산과의 통합 후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10일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회공헌 기금을 늘리고 주주배당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17일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에도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과의 소통을 넓히고 이미 발표한 주주친화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기대를 모으는 말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렵다. 삼성의 입장은 무엇보다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외국투자가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합병반대론이 돌출하자 급조됐다는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회사의 공식 조직인 이사회가 이미 있는데 거버넌스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것도 다분히 작위적이다. 진정으로 주주의 이익과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거버넌스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도 사실은 없다. 회사의 경영을 평소에 주주친화적으로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거버넌스위원회를 굳이 설치하고 배당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합병안을 통과시키키위해 소액투자자들에게 던져준 '꿀케익'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경위가 어떻든 합병안은 통과되었고 논란도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은 삼성의 약속이 이행되는지 앞으로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다. 만약 그런 약속이 한낱 공염불로 끝난다면 삼성은 더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삼성은 스스로 내놓은 약속을 이행하는데 추호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범칙금 납부, 기한을 어겼다면?

생활 법률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다 잘못해 신호를 위반했다. 근처에 아무도 없었지만 얼마 뒤 집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날라 왔다. 해당 도로 인근에 있던 적발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를 까맣게 잊었다. 때는 이미 납부기한을 3일 넘긴 상태. 실수로 이를 잊은 A씨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범칙금은 경범죄의 처벌로 도로교통법 등을 지키지 않을 시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고은행이나 지점, 대리점, 우체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직후 5일 이내 지정 장소에 범칙금을 내면 문제가 없다.

A씨처럼 고의성 없이 단순히 납부기한을 어긴 경우라면 기한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를 더 내면된다. 범칙금이 6만원이라면 1만2000원을 더 내면 된다는 말이다.

다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도 고의로 이를 어기면 법원으로 넘어가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며, 선고 전까지 통보받은 범칙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는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모두 납부하면 해당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범칙행위에대해 처벌받지 않는다.

/연미란 기자 actor@

중국산동성 제남보세구 면세 쇼핑몰 잔여입점업체 모집

제남보세구

면세 쇼핑몰 9월 초 오픈 예정!



※ 본이미지는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사물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남보세구 면세쇼핑몰에서 드리는 4가지 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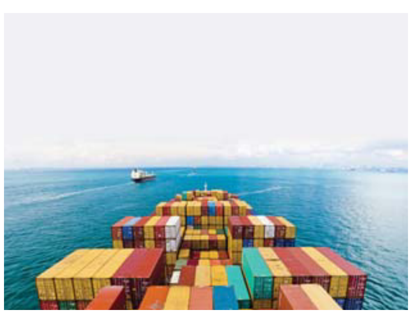
1. 투자 및 수익성

- 저렴한 임대료
  ▶ 고정비 절감
- 한국관 관리업체 통합판매관리
  ▶ 직접 및 간접 경비 절감
- 통역 지원/ 관리지원으로 언어 문제 해결
  ▶ 간접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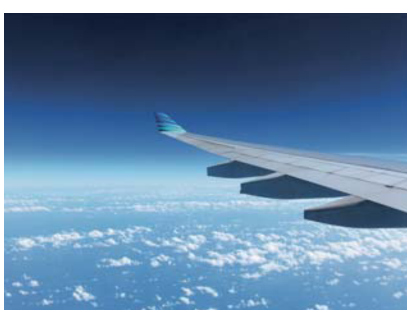
2. 경쟁력

- 인터넷 판매 :
  제작 및 운영비 전액 시정부 지원
- 소매(도매가능) 판매 :
  중국내 최저 수입가로 단가 경쟁력 확보
- 광고비 :
  RMB1,500만/년 정부지원



3. 통관

- 제남세관 투자사업으로 통관절차 간소화로 통관시간 단축
- 사전 통관절차 없이 창고 先출고 後신고 지원



4. 운송 및 재고

- 전문 포딩업체 (NEO GLS) 통합물류관리
  ▶ 운송비 최소화
- 전용기 활용 운송
  ▶ 운송시간 단축 ▶ 재고 최소화
- 보세창고 무료 이용으로 고정비 절감

주소

济南市经十东路综合保税区港源二路755号

제남 국제공항 ▶ 제남 보세구 쇼핑몰

자가용 기준	거리	택시비
소요시간 19분	18km	51원 (약 9,000원)

NAVER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제남보세구 면세점을 검색해주세요!

제남보세구 면세점 ▼ 검색

문의전화

중국 001-86-531-8880-3865

한국 +82-1566-1298

엠포털 홈페이지
www.mportal.org

사업설명회 신청방법

사업설명회(현장실사) 참가 신청서는 엠포털 홈페이지 mportal.org 에서 다운로드 후 팩스 02-6280-4470 또는 이메일 chn@mportal.org로 신청 바랍니다.

주관기관 : 제남시정부, 제남세관, 제남일보 주관업체 山东晨世进出口贸易有限公司